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사연구 2021-02

예술의 현재성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2021. 12

제출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예술의 현재성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주 관 기 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구 책임자 : 유인찬(티브릿지코퍼레이션 연구실장)
김기덕(티브릿지코퍼레이션 센터장)
이명선(티브릿지코퍼레이션 팀장)
조균선(티브릿지코퍼레이션 과장)
오규석(티브릿지코퍼레이션 과장)
연구 협력자 : 성연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소위원회)
정윤희(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소위원회)
최도인(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소위원회)

연구개요

예술의 현재성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 연구 배경

- 최근 예술 활동이 다원화되고, 기술 진보에 따른 창작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근대에 개념화된 예술가의 정체성(제한된 예술장르 안에서 상징적, 미학적으로 예술의 수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재현하는)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됨
-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예술의 현재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예술인들이 느끼는 현 실태와 사회 속의 예술인으로서 느끼는 주관적 인식을 알아보고 예술의 현재성 개념을 도출하여 변화하는 예술계 환경에 따른 동시대적 예술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예술인의 다변화된 현장 활동을 기반으로 예술, 예술인, 예술 활동의 새로운 정의와 기준을 세우고자 함

■ 조사 설계

- 예술의 현재성에 대한 인식조사는 정량조사(온라인 기반의 웹서베이)와 정성조사(포커스그룹인터뷰)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인 조사 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 정량조사의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진·지원사업(2016~2021) 참여 예술인
조사표본	유효응답 기준 54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pm 4.14\%p$ (모집단 : 24,647명)
조사방법	리스트 기반의 설문 URL 접속을 통한 웹서베이(Web-survey)
조사기간	2021. 10. 14.(목) ~ 10. 29.(금) : 16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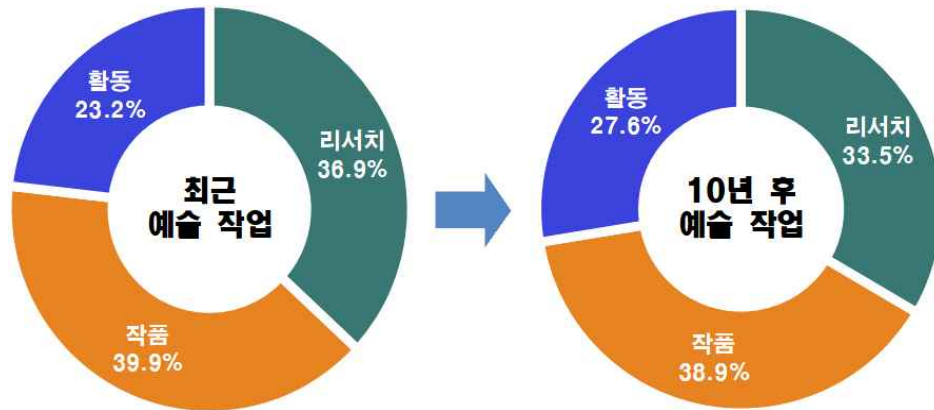
[표 2] 정성조사의 조사 설계

구분	1차 정성조사	2차 정성조사
조사방법	포커스그룹인터뷰(FGI)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조사대상	예술인 3명	예술인 4명
조사일시	2021년 9월 17일, 오후 2~4시	2021년 11월 24일, 오후 2~4시
조사장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조사내용	설문 문항 구성을 위한 자료수집	정량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 확인/검증
회의참석	인터뷰이 3명, 연구자 4명(총 7명)	인터뷰이 4명, 연구자 5명(총 9명)

■ 최근 예술 작업 중 리서치/작품/활동의 비중 및 10년 후 변화

- 최근 예술 작업 중 리서치/작품/활동의 비중으로는 전체 비율을 100.0% 기준으로 했을 때 작품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년 후 비중 변화 또한 작품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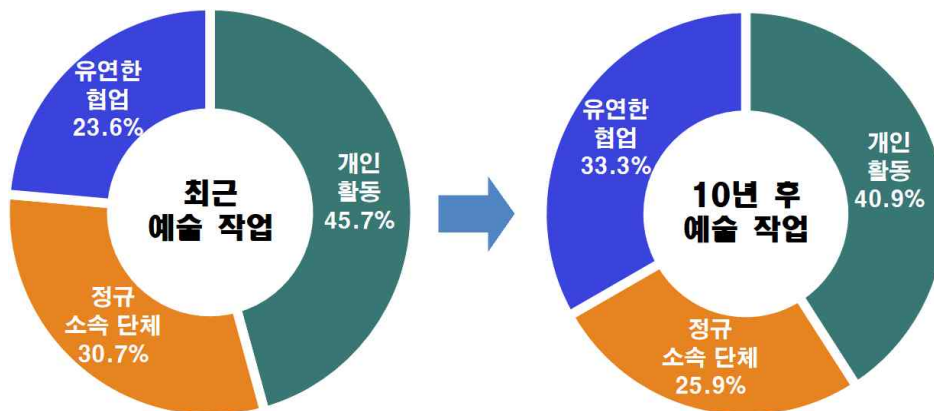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예술 작업 중 리서치/작품/활동의 비중 및 10년 후 변화



■ 최근 예술 작업 중 개인 활동/정규 소속 단체/유연한 협업의 비중 및 10년 후 변화

- 최근 예술 작업 중 개인 활동/정규 소속 단체/유연한 협업의 비중으로는 전체 비율을 100.0%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 활동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년 후 비중 변화 또한 개인 활동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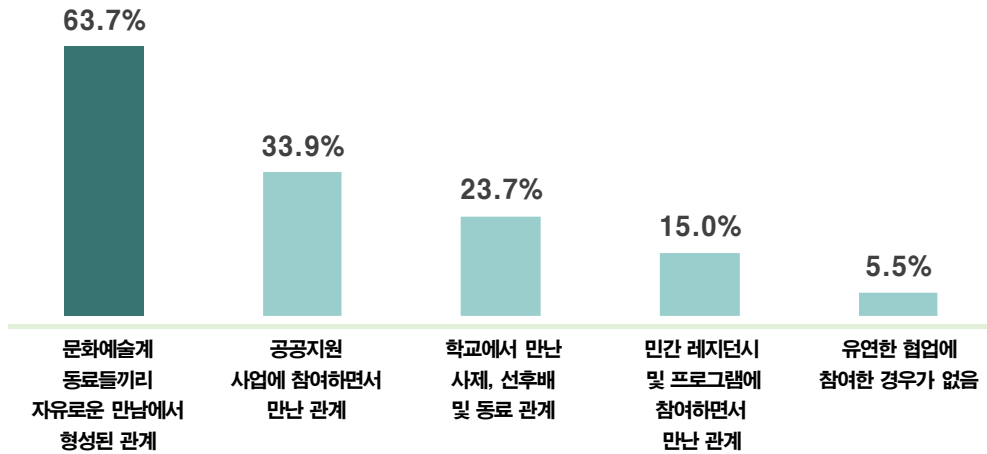
[그림 2] 최근 예술 작업 중 개인 활동/정규 소속 단체/유연한 협업의 비중 및 10년 후 변화



■ 유연한 협업의 계기

- 유연한 협업의 계기(복수응답)로는 문화예술계 동료들끼리 자유로운 만남에서 형성된 관계가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공공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만난 관계(33.9%), 학교에서 만난 사제, 선후배 및 동료 관계(2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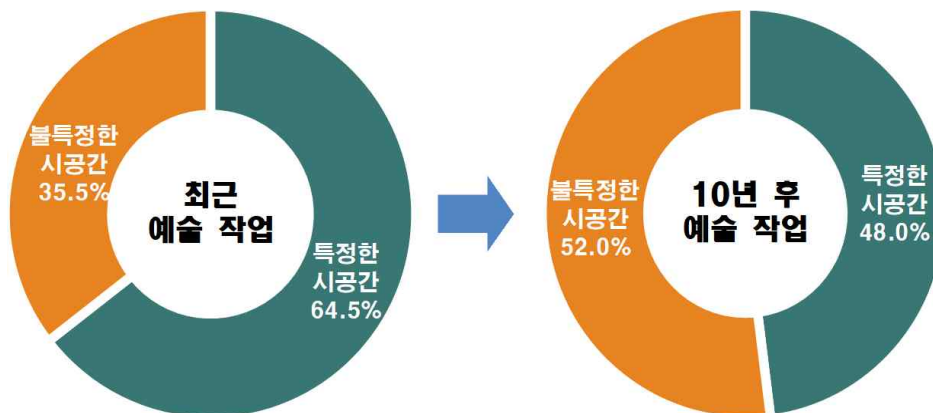
[그림 3] 유연한 협업의 계기



■ 최근 예술 작업 중 특정한 시공간/불특정한 시공간의 비중 및 10년 후 변화

- 최근 예술 작업 중 특정한 시공간/불특정한 시공간의 비중으로는 전체 비율을 100.0% 기준으로 했을 때 특정한 시공간 64.5%, 불특정한 시공간 35.5%로 특정한 시공간이 높게 나타났으나, 10년 후 비중 변화로는 특정한 시공간 48.0%, 불특정한 시공간 52.0%로 불특정한 시공간이 높게 나타남

[그림 4] 최근 예술 작업 중 특정한 시공간/불특정한 시공간의 비중 및 10년 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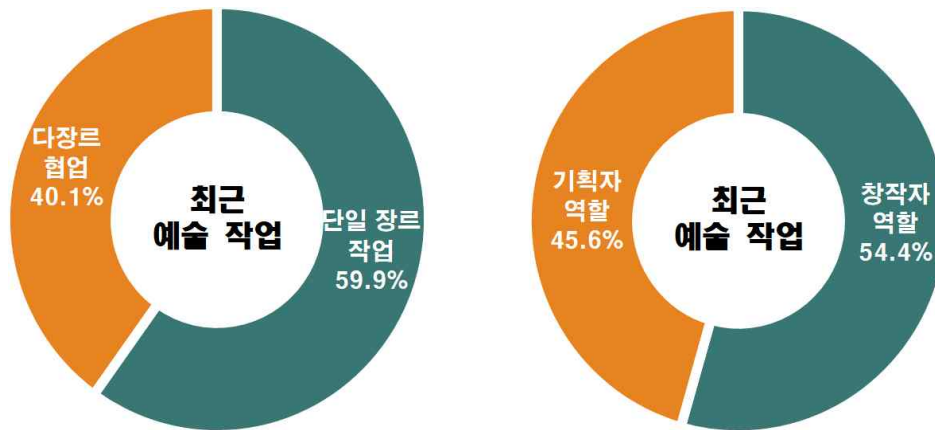


■ 최근 예술 작업 중 단일 장르 작업/다장르 협업, 창작자 역할/기획자 역할의 비중

○ 최근 예술 작업 중 단일 장르 작업/다장르 협업의 비중으로는 전체 비율을 100.0% 기준으로 했을 때 단일 장르 작업 59.9%, 다장르 협업 40.1%로 나타남.

○ 최근 예술 작업 중 창작자 역할/기획자 역할의 비중으로는 전체 비율을 100.0% 기준으로 했을 때 창작자 역할 54.4%, 기획자 역할 45.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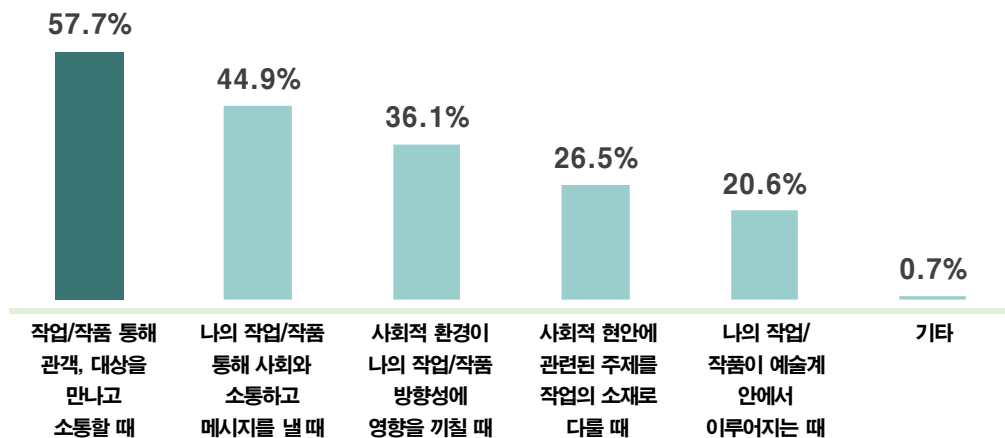
[그림 5] 최근 예술 작업 중 단일 장르 작업/다장르 협업, 창작자 역할/기획자 역할의 비중



■ 예술인으로서 '예술 작업의 사회적' 인식 계기

○ 예술인으로서 '예술 작업의 사회적' 인식 계기(복수응답)로는 작업/작품 통해 관객, 대상을 만나고 소통할 때가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6] 예술인으로서 '예술 작업의 사회적' 인식 계기



■ 본인의 예술 작업에서 주요 소재 및 관심 현안(Top5)

○ 본인의 예술 작업에서 주요 소재 및 관심 현안으로는 다양성이 1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11.0%), 예술과 기술(9.0%), 환경(7.7%), 로컬리티(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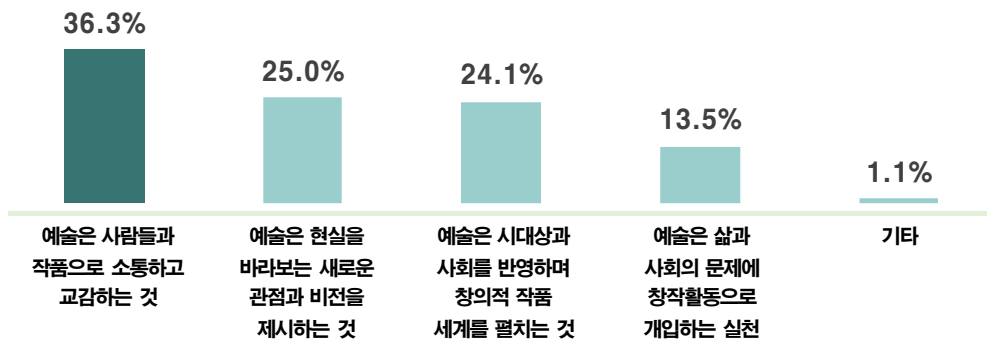
[표 2] 본인의 예술 작업에서 주요 소재 및 관심 현안(Top5)

No	주요 소재 및 관심 현안(Top5)	사례수(개)	비율(%)
1	다양성	99	13.1
2	사회	83	11.0
3	예술과 기술	68	9.0
4	환경	58	7.7
5	로컬리티	54	7.1

■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로는 예술은 사람들과 작품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예술은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25.0%), 예술은 시대상과 사회를 반영하며 창의적 작품 세계를 펼치는 것(2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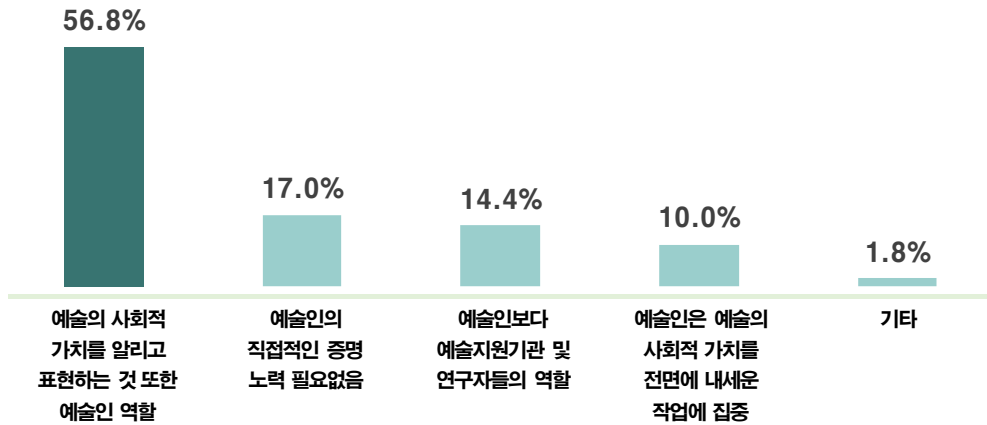
[그림 7]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 ‘예술의 사회적 가치 강조’ 흐름에 대한 인식

○ ‘예술의 사회적 가치 강조’ 흐름에 대한 인식으로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표현하는 것 또한 예술인 역할이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예술인의 직접적인 증명 노력 필요없음 (17.0%), 예술인보다 예술지원기관 및 연구자들의 역할(1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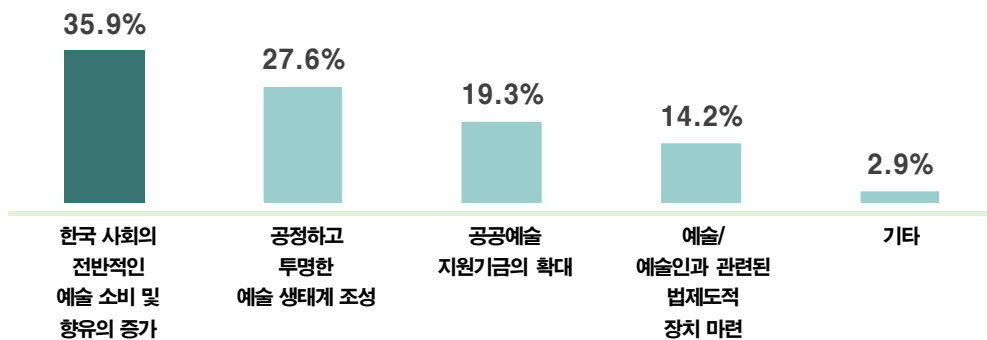
[그림 8] ‘예술의 사회적 가치 강조’ 흐름에 대한 인식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인정을 위한 필요 제반 조건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인정을 위한 필요 제반 조건으로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예술 소비 및 향유의 증가가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예술 생태계 조성(27.6%), 공공예술 지원기금의 확대(19.3%), 공공예술지원기금의 확대(1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9] 예술의 사회적 가치 인정을 위한 필요 제반 조건



■ 예술계의 위계, 권위, 폭력 등으로 예술 창작이 영향받은 경험사례

○ 예술계의 위계, 권위, 폭력 등으로 예술 창작이 영향받은 경험사례으로는 예술계 위계, 권위에 의해 발생한 경험이 1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관공서, 공적지원, 기관직원 등 행정의 예산, 감을관계로 인한 경험(8.9%), 학연, 지연, 인맥, 파벌 등 공정치 못한 요인으로 인한 경험(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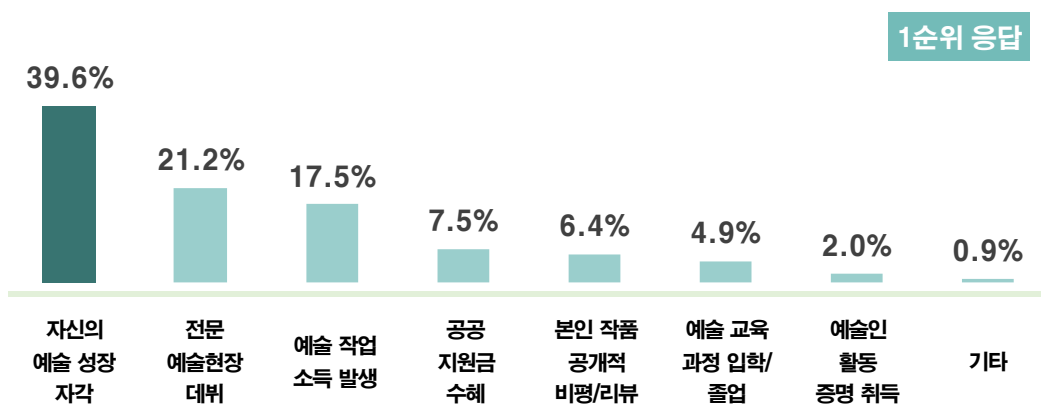
[표 3] 예술계의 위계, 권위, 폭력 등으로 예술 창작이 영향받은 경험사례

No	경험사례(Top5)	사례수(개)	비율(%)
1	예술계 위계, 권위에 의해 발생한 경험	79	14.4
2	관공서, 공적지원, 기관 담당자 등 행정의 예산, 감을관계로 인한 경험	49	8.9
3	학연, 지연, 인맥, 파벌 등 공정치 못한 요인으로 인한 경험	33	6.0
4	예술계 관계, 악습 등의 경험	34	6.2
5	단순 경험 존재	18	3.3

■ 본인이 예술인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

○ 본인이 예술인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1순위 응답)로는 자신의 예술세계 성장을 자각한 때가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전문 예술현장(공연, 전시, 콩쿨 등) 데뷔(21.2%), 예술 작업 소득 발생(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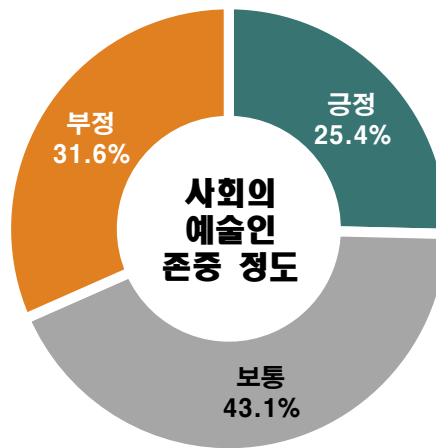
[그림 10] 본인이 예술인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



■ 사회의 예술인 존중 정도

○ 사회의 예술인 존중 정도는 긍정 평가층(매우 긍정 3.1% + 긍정 7.8% + 다소 긍정 14.4%)이 25.4%로 나타났고 부정 평가층(매우 부정 7.1% + 부정 11.7% + 다소 부정 12.8%) 31.6%보다 6.2%p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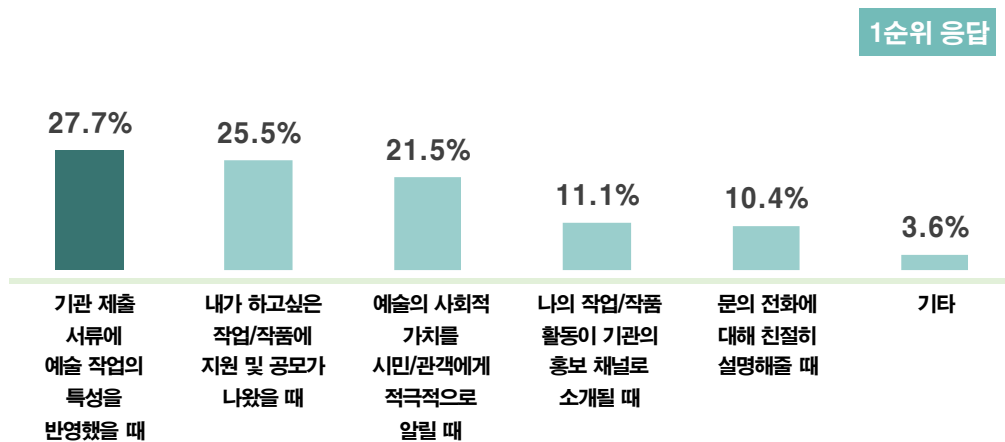
[그림 11] 사회의 예술인 존중 정도



■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는 사례

○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는 사례(1순위 응답)로는 기관 제출 서류에 예술 작업의 특성을 반영했을 때가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작업/작품에 지원 및 공모가 나왔을 때(25.5%),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시민/관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때(2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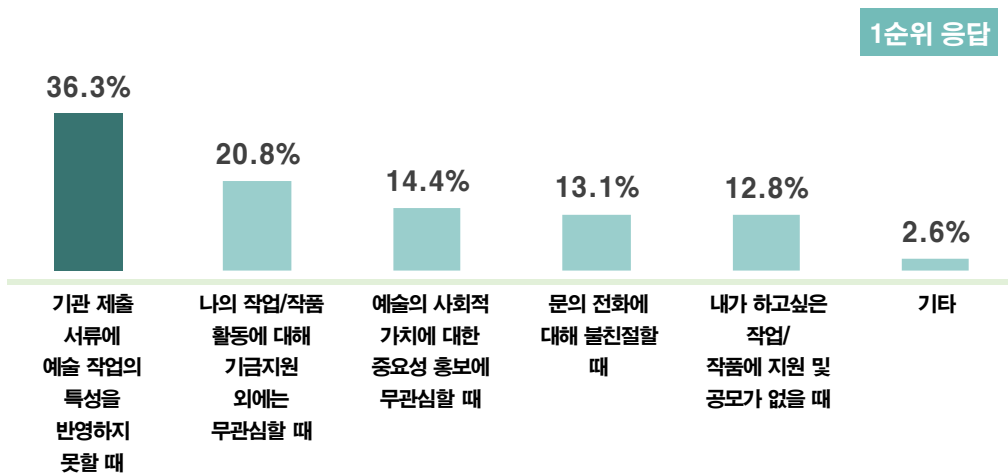
[그림 12]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는 사례



■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지 못하는 사례

○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지 못하는 사례(1순위 응답)로는 기관 제출 서류에 예술 작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때가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나의 작업/작품 활동에 대해 기금지원 외에는 무관심할 때(2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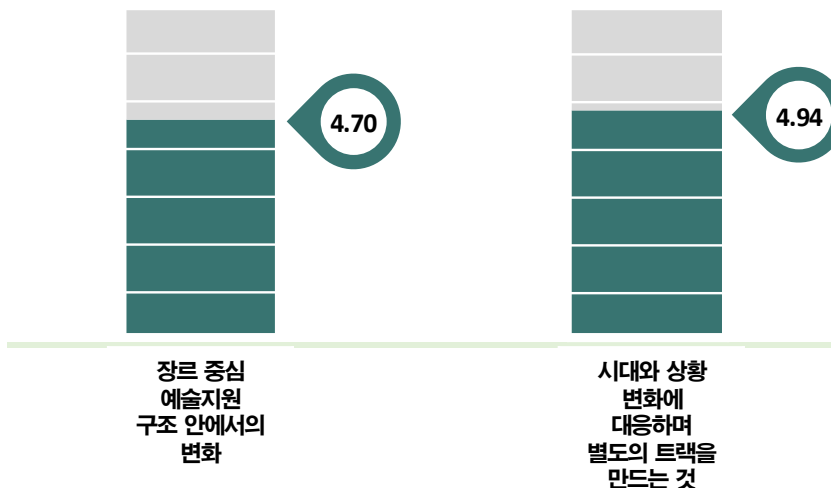
[그림 13]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지 못하는 사례



■ 예술 지원 체계의 방향

○ 예술 지원 체계의 방향(7점 척도)은 장르 중심 예술지원 구조 안에서의 변화 4.70점, 시대와 상황 변화에 대응하며 별도의 트랙을 만드는 것 4.94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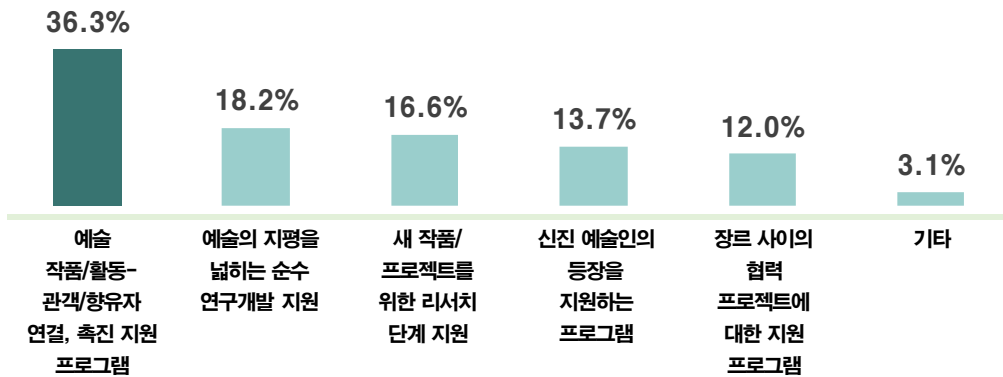
[그림 14] 예술 지원 체계의 방향



■ 장르 지원 내에서 확대가 필요한 지원 영역

○ 장르 지원 내에서 확대가 필요한 지원 영역으로는 예술 작품/활동-관객/향유자 연결, 촉진 지원 프로그램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예술의 지평을 넓히는 순수 연구개발 지원(18.2%), 새 작품/프로젝트를 위한 리서치 단계 지원(1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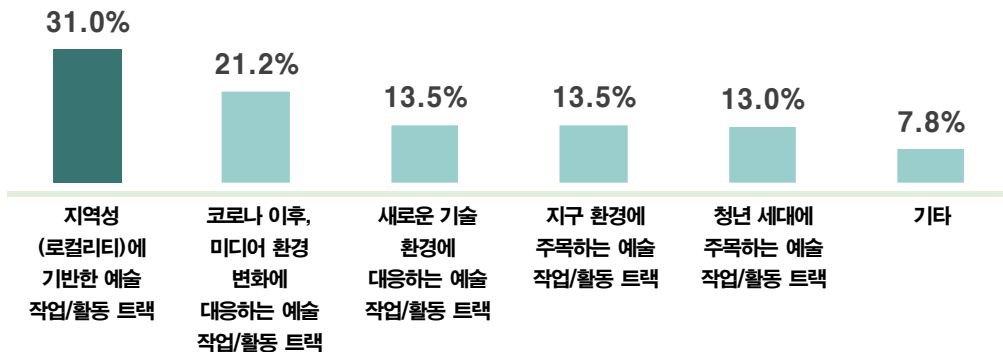
[그림 15] 장르 지원 내에서 확대가 필요한 지원 영역



■ 예술 지원 트랙에 제안하고 싶은 주제

○ 예술 지원 트랙에 제안하고 싶은 주제로는 지역성(로컬리티)에 기반한 예술 작업/활동 트랙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코로나 이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예술 작업/활동 트랙(21.2%),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예술 작업/활동 트랙(1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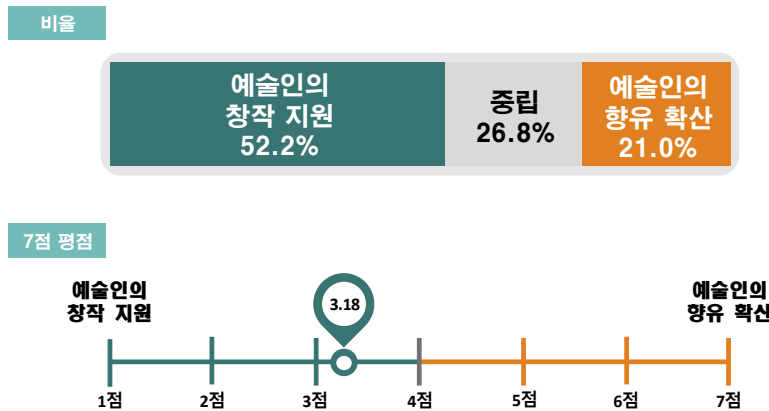
[그림 16] 예술 지원 트랙에 제안하고 싶은 주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초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초점으로는 예술인의 창작 지원(매우 29.6% + 어느정도 14.2% + 약간 8.4%)이 52.2%로 예술인의 향유 확산(매우 8.2% + 어느정도 6.0% + 약간 6.8%) 21.0%보다 31.2%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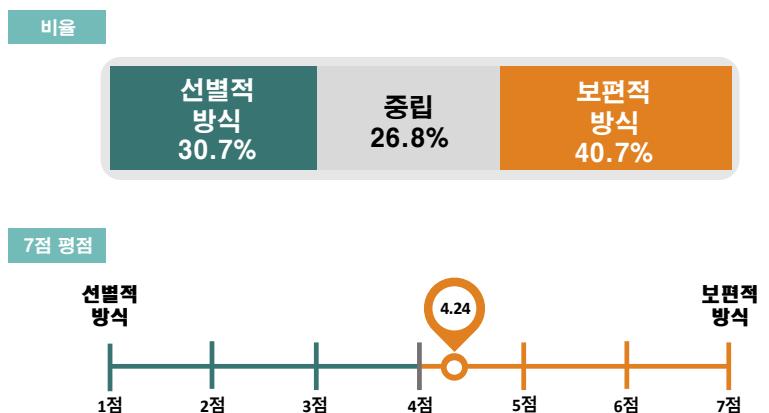
[그림 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초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및 지원 방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및 지원 방식으로는 보편적 방식(매우 19.0% + 어느정도 10.4% + 약간 11.3%)이 40.7%로 선별적 방식(매우 12.2% + 어느정도 9.5% + 약간 8.9%) 30.7%보다 10.0%p 높게 나타남

[그림 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및 지원 방식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조사 설계	27
가. 연구 배경	27
나. 조사 설계	27
2. 조사 내용 및 응답자 특성	29
가. 조사 내용	29
나. 응답자 특성	30

제2장. 결과 분석

1. 예술의 작업 방식	35
가. 최근 예술 작업 중 리서치/작품/활동의 비중	35
나. 10년 후 예술 작업 중 리서치/작품/활동의 비중 변화	37
다. 최근 예술 작업 중 개인 활동/정규 소속 단체/유연한 협업의 비중	39
라. 10년 후 예술 작업 중 개인 활동/정규 소속 단체/유연한 협업의 비중 변화	41
마. 유연한 협업의 계기	43
바. 최근 예술 작업 중 특정한 시공간/불특정한 시공간의 비중	45
사. 10년 후 한국 문화예술계의 특정한 시공간/불특정한 시공간의 비중 변화	47
아. 최근 예술 작업 중 단일 장르 작업/다장르 협업의 비중	49
자. 최근 예술 작업 중 창작자 역할/기획자 역할의 비중	51
2. 예술인과 사회의 현재성	53
가. 예술인으로서 ‘예술 작업의 사회성’ 인식 계기	53
나. 본인의 예술 작업에서 주요 소재 및 관심 현안	55
다.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56
라. ‘예술의 사회적 가치 강조’ 흐름에 대한 인식	58
마. 예술의 사회적 가치 인정을 위한 필요 제반 조건	60
바. 예술계의 위계, 권위, 폭력 등으로 예술 창작이 영향받은 경험사례	62

3. 예술인의 인식에 대한 현재성	63
가. 본인이 예술인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	63
나. 사회의 예술인 존중 정도	66
다.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는 사례	68
라.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지 못하는 사례	71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재성	74
가. 예술 지원 체계의 방향	74
나. 장르 지원 내에서 확대가 필요한 지원 영역	76
다. 예술 지원 트랙에 제안하고 싶은 주제	78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초점	80
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및 지원 방식	82
[부록1] 설문지	85

표 목차

[표 1-1] 정량조사의 조사 설계	27
[표 1-2] 정성조사의 조사 설계	28
[표 1-3] 조사 내용	29
[표 1-4] 응답자 특성	30
[표 2-1] 최근 예술 작업 중 리서치/작품/활동의 비중	36
[표 2-2] 10년 후 예술 작업 중 리서치/작품/활동의 비중 변화	38
[표 2-3] 최근 예술 작업 중 개인 활동/정규 소속 단체/유연한 협업의 비중	40
[표 2-4] 10년 후 예술 작업 중 개인 활동/정규 소속 단체/유연한 협업의 비중 변화	42
[표 2-5] 유연한 협업의 계기	44
[표 2-6] 최근 예술 작업 중 특정한 시공간/불특정한 시공간의 비중	46
[표 2-7] 10년 후 한국 문화예술계의 특정한 시공간/불특정한 시공간의 비중 변화	48
[표 2-8] 최근 예술 작업 중 단일 장르 작업/다장르 협업의 비중	50
[표 2-9] 최근 예술 작업 중 창작자 역할/기획자 역할의 비중	52
[표 2-10] 예술인으로서 '예술 작업의 사회적' 인식 계기	54
[표 2-11] 본인의 예술 작업에서 주요 소재 및 관심 현안	55
[표 2-12]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57
[표 2-13] '예술의 사회적 가치 강조' 흐름에 대한 인식	59
[표 2-14] 예술의 사회적 가치 인정을 위한 필요 제반 조건	61
[표 2-15] 예술계의 위계, 권위, 폭력 등으로 예술 창작이 영향받은 경험사례	62
[표 2-16] 본인이 예술인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 <1순위>	64
[표 2-17] 본인이 예술인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 <1+2+3순위>	65
[표 2-18] 사회의 예술인 존중 정도	67
[표 2-19]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는 사례 <1순위>	69

[표 2-20]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는 사례 <1+2순위>	70
[표 2-21]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지 못하는 사례 <1순위>	72
[표 2-22]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지 못하는 사례 <1+2순위>	73
[표 2-23] 예술 지원 체계의 방향	75
[표 2-24] 장르 지원 내에서 확대가 필요한 지원 영역	77
[표 2-25] 예술 지원 트랙에 제안하고 싶은 주제	79
[표 2-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초점	81
[표 2-27]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및 지원 방식	83

그림 목차

[그림 2-1] 최근 예술 작업 중 리서치/작품/활동의 비중	35
[그림 2-2] 10년 후 예술 작업 중 리서치/작품/활동의 비중 변화	37
[그림 2-3] 최근 예술 작업 중 개인 활동/정규 소속 단체/유연한 협업의 비중	39
[그림 2-4] 10년 후 예술 작업 중 개인 활동/정규 소속 단체/유연한 협업의 비중 변화	41
[그림 2-5] 유연한 협업의 계기	43
[그림 2-6] 최근 예술 작업 중 특정한 시공간/불특정한 시공간의 비중	45
[그림 2-7] 10년 후 한국 문화예술계의 특정한 시공간/불특정한 시공간의 비중 변화	47
[그림 2-8] 최근 예술 작업 중 단일 장르 작업/다장르 협업의 비중	49
[그림 2-9] 최근 예술 작업 중 창작자 역할/기획자 역할의 비중	51
[그림 2-10] 예술인으로서 '예술 작업의 사회성' 인식 계기	53
[그림 2-11]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56
[그림 2-12] '예술의 사회적 가치 강조' 흐름에 대한 인식	58
[그림 2-13] 예술의 사회적 가치 인정을 위한 필요 제반 조건	60
[그림 2-14] 본인이 예술인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	63
[그림 2-15] 사회의 예술인 존중 정도	66
[그림 2-16]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는 사례	68
[그림 2-17]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지 못하는 사례	71
[그림 2-18] 예술 지원 체계의 방향	74
[그림 2-19] 장르 지원 내에서 확대가 필요한 지원 영역	76
[그림 2-20] 예술 지원 트랙에 제안하고 싶은 주제	78
[그림 2-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초점	80
[그림 2-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및 지원 방식	82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조사 설계

가. 연구 배경

- 최근 예술 활동이 다원화되고, 기술 진보에 따른 창작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근대에 개념화된 예술가의 정체성(제한된 예술장르 안에서 상징적, 미학적으로 예술의 수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재현하는)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됨
-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예술의 현재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예술인들이 느끼는 현 실태와 사회 속의 예술인으로서 느끼는 주관적 인식을 알아보고 예술의 현재성 개념을 도출하여 변화하는 예술계 환경에 따른 동시대적 예술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예술인의 다변화된 현장 활동을 기반으로 예술, 예술인, 예술 활동의 새로운 정의와 기준을 세우고자 함
-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예술의 현재성 개념은 향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 미션 및 지원사업의 목표에 중장기적으로 반영될 기초자료 등에 활용하고자 함

나. 조사 설계

- 예술의 현재성에 대한 인식조사(정량조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진·지원사업(2016~2021) 참여 예술인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 동안 리스트 기반의 온라인 웹서베이(Web-survey)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문항 설계 및 조사 결과의 확인을 위해 정성조사인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Focus Group Interview) 2회를 실시함. 정량조사와 정성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 예술의 현재성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의 조사 설계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1] 정량조사의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진·지원사업(2016~2021) 참여 예술인
조사표본	유효응답 기준 54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14%p (모집단 : 24,647명)
조사방법	리스트 기반의 설문 URL 접속을 통한 웹서베이(Web-survey)
자료처리분석	수집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 전산 처리하여 각 항목별로 빈도/교차 분석 실시
조사기간	2021. 10. 14.(목) ~ 10. 29.(금) : 16일간
조사설계 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소위원회 예술의 현재성 연구TF(성연주, 정윤희, 최도인 위원)
조사기관	(주)티브릿지코퍼레이션

1) 조사설계 : 조사기획 및 문항 설계, 분석 토론은 예술의 현재성 연구TF 담당

[표 1-2] 정성조사의 조사 설계

구 분	1차 정성조사		2차 정성조사	
조사방법	포커스그룹인터뷰(FGI)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조사대상	예술인 3명		예술인 4명	
조사일시	2021년 9월 17일, 오후 2~4시		2021년 11월 24일, 오후 2~4시	
조사장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조사내용	설문 문항 구성을 위한 자료수집		정량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 확인/검증	
회의참석	인터뷰이	미술 작가, ○○○	인터뷰이	연극 연출가, ○○○
	인터뷰이	연극 연출가, ○○○	인터뷰이	음악 창작가, ○○○
	인터뷰이	미술 작가, ○○○	인터뷰이	시각예술 작가/기획자, ○○○
	연구자	정책혁신소위원회 정윤희 위원	인터뷰이	시각예술 기획자, ○○○
	연구자	정책혁신소위원회 최도인 위원	연구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강주 책임연구원
	연구자	티브릿지코퍼레이션 유인찬 연구실장	연구자	정책혁신소위원회 성연주 위원
	연구자	티브릿지코퍼레이션 오규석 과장	연구자	정책혁신소위원회 정윤희 위원
	총 7명		연구자	티브릿지코퍼레이션 유인찬 연구실장
			연구자	티브릿지코퍼레이션 조균선 연구원
		총 9명		

2. 조사 내용 및 응답자 특성

가. 조사 내용

- 예술의 현재성에 대한 인식조사는 예술의 작업방식, 예술인과 사회의 현재성, 예술인의 인식에 대한 현재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재성, 응답자 특성의 5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세부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3] 조사 내용

구분	내용
예술의 작업방식	<input type="checkbox"/> 리서치/작품/활동의 비중 <input type="checkbox"/> 10년 후 리서치/작품/활동'의 비중 변화 <input type="checkbox"/> 개인 활동/정규 소속 단체/유연한 방식의 협업의 비중 <input type="checkbox"/> 10년 후 개인 활동/정규 소속 단체/유연한 방식의 협업'의 비중 변화 <input type="checkbox"/> 유연한 협업의 계기 <input type="checkbox"/> '특정한 시공간 작업'과 '불특정한 시공간 작업'의 비중 <input type="checkbox"/> 10년 후 '특정한 시공간 작업'과 '불특정한 시공간 작업'의 비중 변화 <input type="checkbox"/> '단일 장르 작업' 대 '다장르 협업'의 비중 <input type="checkbox"/> '창작자 역할' 대 '기획자 역할'의 비중
예술인과 사회의 현재성	<input type="checkbox"/> 사회속의 예술인 인식 <input type="checkbox"/> 예술 작업에서 주요 소재가 되는 사회적 주제 <input type="checkbox"/> 예술의 사회적 가치 및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 <input type="checkbox"/> 예술계의 위계, 권위, 폭력 등으로 인한 예술 창작의 영향
예술인의 인식에 대한 현재성	<input type="checkbox"/> 스스로 '예술인'이라고 인식하게 된 계기 <input type="checkbox"/> 우리 사회에서 '예술인'의 존중 정도 <input type="checkbox"/>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의 존중 느낄 때, 느끼지 못할 때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현재성	<input type="checkbox"/> 선호하는 예술지원 체계 <input type="checkbox"/>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초점 <input type="checkbox"/>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방식 <input type="checkbox"/>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
응답자 특성	<input type="checkbox"/> 성별 <input type="checkbox"/> 연령대 <input type="checkbox"/> 거주지역 <input type="checkbox"/> 예술인 활동시작 시기 <input type="checkbox"/> 주 예술 활동 분야

나. 응답자 특성

○ 예술의 현재성에 대한 인식조사에 참여한 548명의 응답자 특성을 성별, 연령별, 지역별, 주 예술 활동 분야별, 예술인 활동 기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4]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	응답 비율
■ 전 체 ■		(548)	100.0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7.5
	미술	(68)	12.4
	음악	(109)	19.9
	연극(뮤지컬 포함)	(120)	21.9
	무용	(43)	7.8
	영상	(25)	4.6
	다원예술	(40)	7.3
	디자인(무대, 조명, 음향 등)	(13)	2.4
	비평	(10)	1.8
	기획/경영/정책 등 기타	(79)	14.4
성별	여성	(286)	52.2
	남성	(242)	44.2
	LGBTQ+	(5)	0.9
	답변하고 싶지 않음	(15)	2.7
연령대	20대 이하	(39)	7.1
	30대	(187)	34.1
	40대	(185)	33.8
	50대	(101)	18.4
	60대 이상	(36)	6.6
권역 ²⁾	수도권	(370)	67.5
	비수도권	(178)	32.5
지역	서울	(232)	42.3
	인천/경기	(138)	25.2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7.3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13.5
	전라(광주 포함)	(44)	8.0
	강원/제주	(20)	3.6
예술인 활동기간	5년 미만	(43)	7.8
	5년~10년 미만	(122)	22.3
	10년~15년 미만	(128)	23.4
	15년~20년 미만	(82)	15.0
	20년~30년 미만	(106)	19.3
	30년 이상	(67)	12.2

2) 권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충청, 경상, 전라, 강원, 제주)으로 구분

- 예술의 현재성에 대한 인식조사에 참여한 548명의 성별에서는 여성 286명(52.2%), 남성 242명(44.2%), 답변하고 싶지 않음 15명(2.7%), LGBTQ+ 5명(0.9%)으로 나타났고, 연령별에서는 30대 연령층이 187명(34.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 연령층(185명, 33.8%), 50대 연령층(101명, 18.4%), 20대 이하 연령층(39명, 7.1%), 60대 이상(36명, 6.6%)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응답자 특성을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의 수도권이 370명(67.5%), 충청, 경상, 전라, 강원, 제주의 비수도권이 178명(32.5%)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서울이 232명(42.3%), 인천/경기(138명, 25.2%),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74명, 13.5%), 전라(광주 포함)(44명, 8.0%), 충청(대전, 세종 포함)(40명, 7.3%), 강원/제주(20명, 3.6%) 순으로 나타남
- 주 예술 활동 분야³⁾에서는 연극(뮤지컬 포함)이 120명(21.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음악(109명, 19.9%), 기획/경영/정책 등 기타(79명, 14.4%), 미술(68명, 12.4%), 무용(43명, 7.8%), 문학(41명, 7.5%), 다원예술(40명, 7.3%), 영상(25명, 4.6%), 디자인(무대, 조명, 음향 등)(13명, 2.4%), 비평(10명, 1.8%) 순을 보였음
- 예술인 활동기간에 있어서는 10년~15년 미만이 128명(23.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년~10년 미만(122명, 22.3%), 20년~30년 미만(106명, 19.3%), 15년~20년 미만(82명, 15.0%), 30년 이상(67명, 12.2%), 5년 미만(43명, 7.8%) 순을 보였음

3) 주 예술 활동 분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규모(수)를 감안하여 유의할당을 통해 진행한 결과임.

제2장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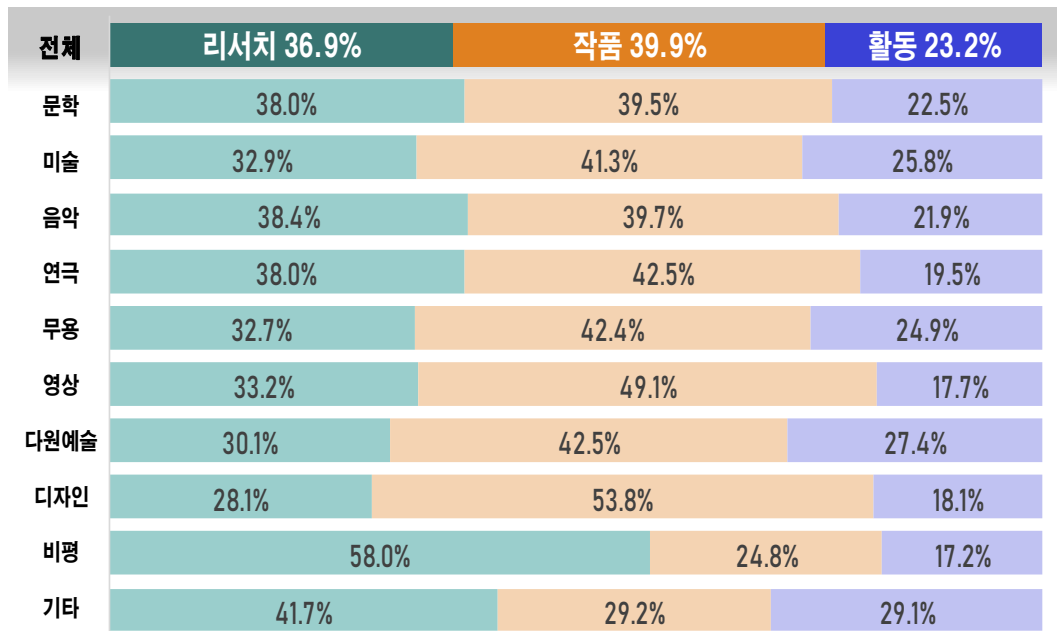
1. 예술의 작업 방식

가. 최근 예술 작업 중 리서치/작품/활동의 비중

■ 최근 예술 작업 중 리서치/작품/활동의 비중으로는 전체 비율을 100.0% 기준으로 했을 때 작품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리서치 36.9%, 활동 23.2% 순으로 나타남

- 예술 작업 비중으로 작품이라는 응답은 디자인 분야가 5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영상(49.1%), 연극과 다원예술(각 42.5%), 무용(42.4%), 미술(41.3%)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리서치라는 응답은 비평 분야가 5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음악(38.4%), 연극과 문학(각 38.0%)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활동이라는 응답은 다원예술 분야가 27.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술(25.8%), 무용(24.9%)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 최근 예술 작업 중 리서치/작품/활동의 비중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작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은 디자인(53.8%), 60대 이상(43.6%), 비수도권(42.4%), 예술인 활동 20년~30년 미만(42.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리서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은 비평(58.0%), 40대(39.3%), 수도권(37.3%), 예술인 활동 5년 미만(47.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1] 최근 예술 작업 중 리서치/작품/활동의 비중

구 분 (단위 : %)		표본수 (명)	리서치 (작품 구상 및 개발을 위한 개인/집단 리서치, 고도화된 예술 작업을 위한 심화된 트레이닝과 연습)	작품 (무대/갤러리/ 전시관/박물관/ 거리 등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작업)	활동 거버넌스/운영단/ 모임/세미나 참여, 예술로 사업 참여, 예술교육TA 참여, 예술(인)권익투쟁(집회/시위) 등
전 체		(548)	36.9	39.9	23.2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38.0	39.5	22.5
	미술	(68)	32.9	41.3	25.8
	음악	(109)	38.4	39.7	21.9
	연극(뮤지컬 포함)	(120)	38.0	42.5	19.5
	무용	(43)	32.7	42.4	24.9
	영상	(25)	33.2	49.1	17.7
	다원예술	(40)	30.1	42.5	27.4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28.1	53.8	18.1
	비평	(10)	58.0	24.8	17.2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41.7	29.2	29.1	
성별	여성	(286)	38.9	37.7	23.3
	남성	(242)	34.6	42.1	23.4
	LGBTQ+	(5)	30.0	44.0	26.0
	응답거절	(15)	38.0	44.3	17.7
연령대	20대 이하	(39)	35.8	36.7	27.6
	30대	(187)	36.0	40.3	23.7
	40대	(185)	39.3	38.7	22.0
	50대	(101)	35.3	41.2	23.5
	60대 이상	(36)	35.3	43.6	21.1
권역	수도권	(370)	37.3	38.7	24.0
	비수도권	(178)	36.2	42.4	21.5
지역	서울	(232)	37.5	38.7	23.8
	인천/경기	(138)	36.8	38.8	24.5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39.4	38.6	22.0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32.5	45.1	22.5
	전라(광주 포함)	(44)	33.1	45.3	21.5
	강원/제주	(20)	50.0	33.4	16.6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47.9	26.9	25.2
	5년~10년 미만	(122)	35.6	41.5	22.9
	10년~15년 미만	(128)	37.0	39.3	23.7
	15년~20년 미만	(82)	37.2	40.6	22.2
	20년~30년 미만	(106)	34.6	42.2	23.2
	30년 이상	(67)	35.3	42.1	22.6

나. 10년 후 예술 작업 중 리서치/작품/활동의 비중 변화

■ 10년 후 예술 작업 중 리서치/작품/활동의 비중 변화로는 전체 비율을 100.0% 기준으로 했을 때 작품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리서치 33.5%, 활동 27.6% 순으로 나타남

- 10년 후 예술 작업 비중으로 작품이라는 응답은 디자인 분야가 4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연극(45.2%), 영상(42.8%), 문학(39.5%)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리서치라는 응답은 비평 분야가 49.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영상(34.6%), 무용(34.3%), 다원예술(33.8%), 문학(33.7%)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활동이라는 응답은 다원예술 분야가 3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술(29.9%), 무용(28.8%)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 10년 후 예술 작업 중 리서치/작품/활동의 비중 변화

전체	리서치 33.5%	작품 38.9%	활동 27.6%
문학	33.7%	39.5%	26.8%
미술	32.8%	37.3%	29.9%
음악	32.8%	40.1%	27.1%
연극	30.7%	45.2%	24.1%
무용	34.3%	36.9%	28.8%
영상	34.6%	42.8%	22.6%
다원예술	33.8%	33.0%	33.3%
디자인	31.0%	47.2%	21.8%
비평	49.0%	25.0%	26.0%
기타	36.6%	31.9%	31.5%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작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은 디자인(47.2%), 50대 이상(42.2%), 비수도권(40.2%), 예술인 활동 30년 이상(41.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리서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은 비평(49.0%), 20대 이하(36.4%), 수도권(33.7%), 예술인 활동 5년 미만(35.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2] 10년 후 예술 작업 중 리서치/작품/활동의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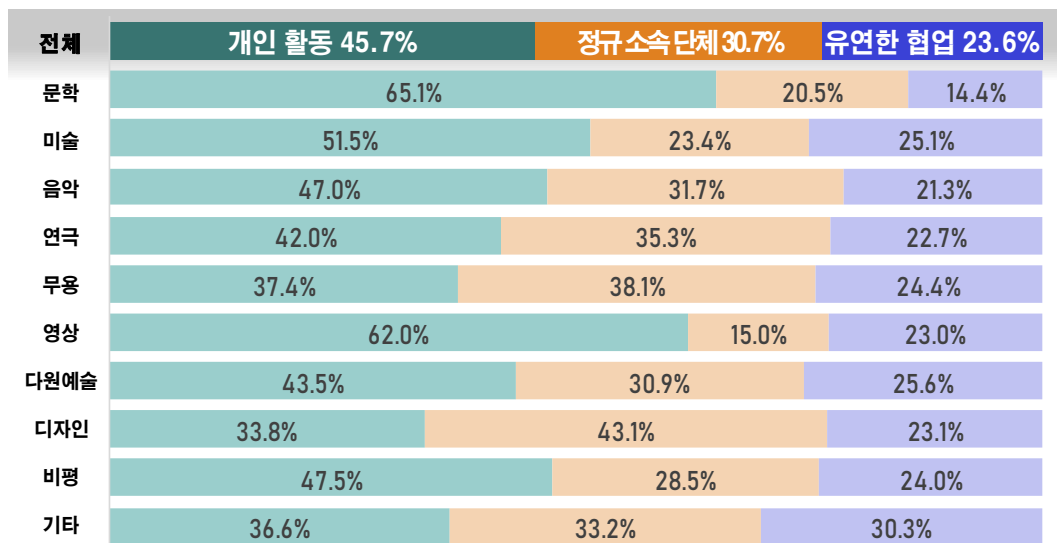
구 분 (단위 : %)		표본수 (명)	리서치 (작품 구상 및 개발을 위한 개인/집단 리서치, 고도화된 예술 작업을 위한 심화된 트레이닝과 연습)	작품 (무대/갤러리/ 전시관/박물관/ 거리 등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작업)	활동 거버넌스/운영단/ 모임/세미나 참여, 예술로 사업 참여, 예술교육TA 참여, 예술(인)권익투쟁(집회/시위) 등
전 체		(548)	33.5	38.9	27.6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33.7	39.5	26.8
	미술	(68)	32.8	37.3	29.9
	음악	(109)	32.8	40.1	27.1
	연극(뮤지컬 포함)	(120)	30.7	45.2	24.1
	무용	(43)	34.3	36.9	28.8
	영상	(25)	34.6	42.8	22.6
	다원예술	(40)	33.8	33.0	33.3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31.0	47.2	21.8
	비평	(10)	49.0	25.0	26.0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36.6	31.9	31.5
성별	여성	(286)	34.6	37.7	27.7
	남성	(242)	31.7	40.9	27.4
	LGBTQ+	(5)	38.0	34.0	28.0
	응답거절	(15)	39.3	31.0	29.7
연령대	20대 이하	(39)	36.4	34.1	29.5
	30대	(187)	35.4	36.7	27.8
	40대	(185)	32.6	39.9	27.4
	50대	(101)	31.9	42.2	25.9
	60대 이상	(36)	28.8	40.8	30.4
권역	수도권	(370)	33.7	38.3	28.1
	비수도권	(178)	33.1	40.2	26.7
지역	서울	(232)	34.4	38.5	27.1
	인천/경기	(138)	32.3	37.9	29.8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34.7	37.6	27.7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32.6	39.1	28.3
	전라(광주 포함)	(44)	29.4	45.0	25.6
	강원/제주	(20)	39.7	38.9	21.5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35.7	38.0	26.3
	5년~10년 미만	(122)	34.9	36.9	28.2
	10년~15년 미만	(128)	33.6	38.1	28.3
	15년~20년 미만	(82)	34.7	40.4	24.9
	20년~30년 미만	(106)	32.0	39.5	28.6
	30년 이상	(67)	30.1	41.8	28.1

다. 최근 예술 작업 중 개인 활동/정규 소속 단체/유연한 협업의 비중

■ 최근 예술 작업 중 개인 활동/정규 소속 단체/유연한 협업의 비중으로는 전체 비율을 100.0%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 활동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정규 소속 단체 30.7%, 유연한 협업 23.6% 순으로 나타남

- 최근 예술 작업 중 개인 활동 비중이 높다는 응답은 문학 분야가 65.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영상(62.0%), 미술(51.5%), 비평(47.5%), 음악(47.0%)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규 소속 단체라는 응답은 디자인 분야가 43.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무용(38.1%), 연극(35.3%), 음악(31.7%), 다원예술(30.9%)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유연한 협업이라는 응답은 다원예술 분야가 25.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술(25.1%), 무용(24.4%), 비평(24.0%)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 최근 예술 작업 중 개인 활동/정규 소속 단체/유연한 협업의 비중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개인 활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은 문학(65.1%), 60대 이상(52.4%), 수도권(46.7%), 예술인 활동 5년~10년 미만(48.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정규 소속 단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은 디자인(43.1%), 60대 이상(35.7%), 비수도권(34.9%), 예술인 활동 30년 이상(37.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3] 최근 예술 작업 중 개인 활동/정규 소속 단체/유연한 협업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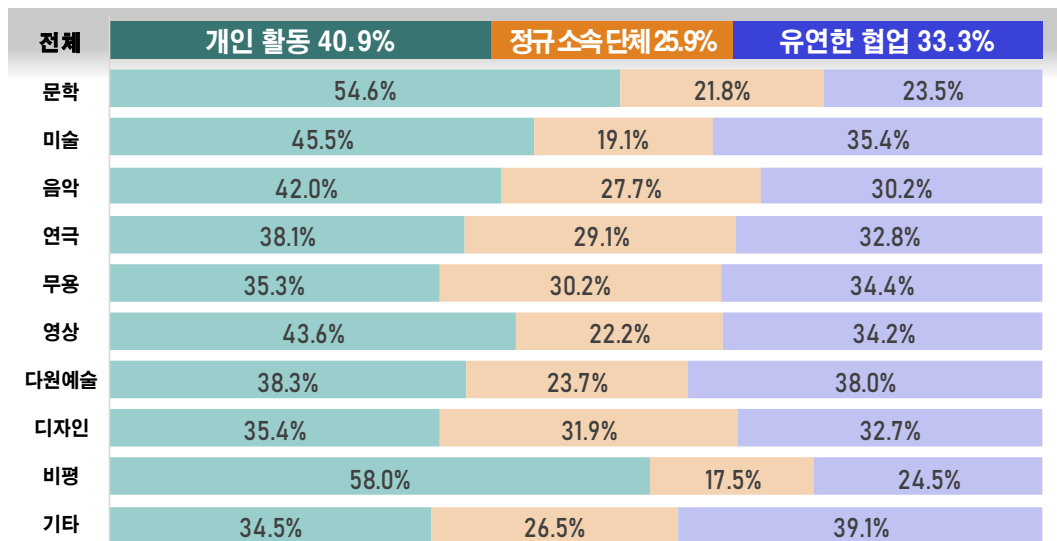
구 분 (단위 : %)		표본수 (명)	개인 활동 (개인 용역을 통한 기획·창작매개 작업, 운영단/거버넌스 등의 참여)	정규 소속 단체 (극단, 오케스트라 등의 예술단체)	유연한 협업 (일회성~다회성 프로젝트 형태로 움직이는 콜렉티브와 유연한 집단 활동)
전 체		(548)	45.7	30.7	23.6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65.1	20.5	14.4
	미술	(68)	51.5	23.4	25.1
	음악	(109)	47.0	31.7	21.3
	연극(뮤지컬 포함)	(120)	42.0	35.3	22.7
	무용	(43)	37.4	38.1	24.4
	영상	(25)	62.0	15.0	23.0
	다원예술	(40)	43.5	30.9	25.6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33.8	43.1	23.1
	비평	(10)	47.5	28.5	24.0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36.6	33.2	30.3	
성별	여성	(286)	43.4	31.1	25.5
	남성	(242)	47.9	31.0	21.1
	LGBTQ+	(5)	70.0	14.0	16.0
	응답거절	(15)	45.7	25.3	29.0
연령대	20대 이하	(39)	42.2	27.9	29.9
	30대	(187)	44.5	29.6	25.9
	40대	(185)	45.4	30.6	24.0
	50대	(101)	47.4	32.5	20.0
	60대 이상	(36)	52.4	35.7	12.0
권역	수도권	(370)	46.7	28.7	24.5
	비수도권	(178)	43.5	34.9	21.6
지역	서울	(232)	46.0	28.5	25.5
	인천/경기	(138)	48.0	29.1	22.9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46.1	28.8	25.1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38.4	36.7	24.9
	전라(광주 포함)	(44)	45.1	40.9	14.0
	강원/제주	(20)	54.0	27.3	18.8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45.3	26.3	28.4
	5년~10년 미만	(122)	48.2	29.3	22.5
	10년~15년 미만	(128)	46.6	25.2	28.2
	15년~20년 미만	(82)	44.8	32.5	22.7
	20년~30년 미만	(106)	44.2	35.0	20.9
	30년 이상	(67)	43.1	37.9	19.0

라. 10년 후 예술 작업 중 개인 활동/정규 소속 단체/유연한 협업의 비중 변화

■ 10년 후 예술 작업 중 개인 활동/정규 소속 단체/유연한 협업의 비중 변화로는 전체 비율을 100.0%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 활동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유연한 협업 33.3%, 정규 소속 단체 25.9% 순으로 나타남

- 10년 후 예술 작업 중 개인 활동 비중이 높다는 응답은 비평 분야가 5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문학(54.6%), 미술(45.5%), 영상(43.6%), 음악(42.0%)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유연한 협업이라는 응답은 다원예술이 3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술(35.4%), 무용(34.4%), 영상(34.2%)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규 소속 단체라는 응답은 디자인 분야가 31.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무용(30.2%), 연극(29.1%), 음악(27.7%)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 10년 후 예술 작업 중 개인 활동/정규 소속 단체/유연한 협업의 비중 변화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개인 활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은 비평(58.0%), 60대 이상(46.4%), 수도권(40.9%), 예술인 활동 5년~10년 미만(4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유연한 협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은 다원예술(38.0%), 40대(35.2%), 수도권(34.1%), 예술인 활동 5년 미만(36.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4] 10년 후 예술 작업 중 개인 활동/정규 소속 단체/유연한 협업의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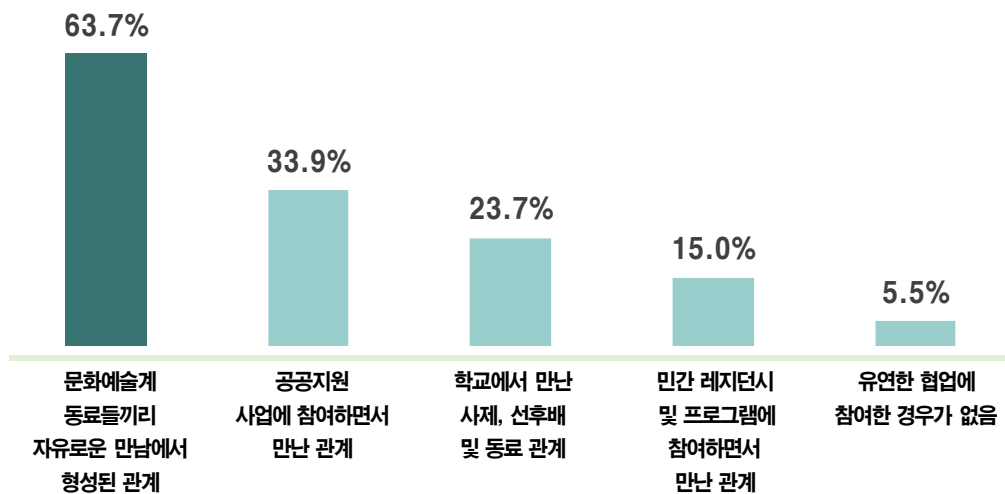
구 분 (단위 : %)		표본수 (명)	개인 활동 (개인 용역을 통한 기획·창작매개 작업, 운영단/거버넌스 등의 참여)	정규 소속 단체 (극단, 오케스트라 등의 예술단체)	유연한 협업 (일회성~다회성 프로젝트 형태로 움직이는 콜렉티브와 유연한 집단 활동)
전 체		(548)	40.9	25.9	33.3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54.6	21.8	23.5
	미술	(68)	45.5	19.1	35.4
	음악	(109)	42.0	27.7	30.2
	연극(뮤지컬 포함)	(120)	38.1	29.1	32.8
	무용	(43)	35.3	30.2	34.4
	영상	(25)	43.6	22.2	34.2
	다원예술	(40)	38.3	23.7	38.0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35.4	31.9	32.7
	비평	(10)	58.0	17.5	24.5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34.5	26.5	39.1
성별	여성	(286)	39.0	24.9	36.1
	남성	(242)	42.8	27.6	29.6
	LGBTQ+	(5)	40.0	13.0	47.0
	응답거절	(15)	44.3	22.2	33.5
연령대	20대 이하	(39)	34.1	31.1	34.8
	30대	(187)	42.4	23.5	34.1
	40대	(185)	40.2	24.5	35.2
	50대	(101)	39.8	28.4	31.8
	60대 이상	(36)	46.4	32.5	21.1
권역	수도권	(370)	40.9	25.0	34.1
	비수도권	(178)	40.7	27.8	31.5
지역	서울	(232)	40.8	24.4	34.8
	인천/경기	(138)	41.2	26.0	32.8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38.5	27.6	33.9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39.1	28.4	32.4
	전라(광주 포함)	(44)	44.9	29.0	26.1
	강원/제주	(20)	41.5	23.3	35.3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39.0	24.9	36.2
	5년~10년 미만	(122)	43.3	24.9	31.7
	10년~15년 미만	(128)	40.6	24.2	35.2
	15년~20년 미만	(82)	40.7	26.6	32.7
	20년~30년 미만	(106)	39.5	25.5	35.0
	30년 이상	(67)	40.3	31.4	28.2

마. 유연한 협업의 계기

■ 유연한 협업의 계기(복수응답)로는 문화예술계 동료들끼리 자유로운 만남에서 형성된 관계가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공공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만난 관계(33.9%), 학교에서 만난 사제, 선후배 및 동료 관계(2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계 동료들끼리 자유로운 만남에서 형성된 관계라는 응답은 비평(90.0%), 무용(67.4%), 미술(69.1%), 음악(66.1%) 등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공공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만난 관계라는 응답은 미술(39.7%), 무용(37.2%) 등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 학교에서 만난 사제, 선후배 및 동료 관계라는 응답은 비평(40.0%), 음악(34.9%), 미술(29.4%), 영상(28.0%) 등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 민간 레지던시 및 프로그램 참여로 만난 관계라는 응답은 디자인(38.5%), 미술(27.9%), 비평(20.0%) 등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 유연한 협업에 참여한 경우가 없다는 응답은 디자인(15.4%), 문학(14.6%) 등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2-5] 유연한 협업의 계기(복수응답)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계 동료들끼리 자유로운 만남에서 형성된 관계라는 응답은 비평(90.0%), 50대(68.3%), 수도권(65.1%), 예술인 활동 5년~10년 미만(67.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공공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만난 관계라는 응답은 미술(39.7%), 20대 이하(43.6%), 비수도권(39.9%), 예술인 활동 5년 미만(53.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5] 유연한 협업의 계기(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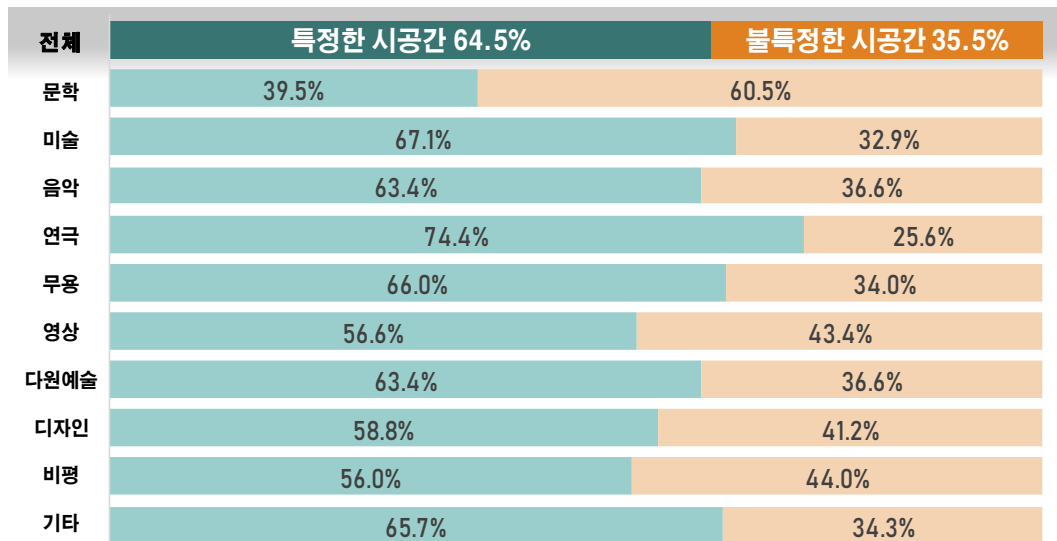
구 분 (단위 : %)		표본수 (명)	문화 예술계 동료끼리 자유로운 만남에서 형성된 관계	공공지원 사업에 참여 하면서 만남 관계	학교에서 만남 사제, 선후배 및 동료 관계	민간 레지던시 및 프로그램 참여로 만남 관계	유연한 협업에 참여한 경우가 없음
전 체		(548)	63.7	33.9	23.7	15.0	5.5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58.5	31.7	7.3	4.9	14.6
	미술	(68)	69.1	39.7	29.4	27.9	4.4
	음악	(109)	66.1	29.4	34.9	11.9	4.6
	연극(뮤지컬 포함)	(120)	65.0	25.8	20.0	10.0	6.7
	무용	(43)	67.4	37.2	14.0	9.3	2.3
	영상	(25)	56.0	28.0	28.0	16.0	8.0
	다원예술	(40)	62.5	35.0	25.0	15.0	0.0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30.8	30.8	23.1	38.5	15.4
	비평	(10)	90.0	20.0	40.0	20.0	0.0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59.5	50.6	19.0	19.0	3.8	
성별	여성	(286)	60.8	40.2	26.2	17.5	4.2
	남성	(242)	66.5	28.9	20.2	12.0	6.2
	LGBTQ+	(5)	60.0	0.0	20.0	0.0	20.0
	응답거절	(15)	73.3	6.7	33.3	20.0	13.3
연령대	20대 이하	(39)	56.4	43.6	38.5	17.9	5.1
	30대	(187)	63.6	37.4	37.4	18.7	2.7
	40대	(185)	63.8	33.0	17.8	13.5	7.6
	50대	(101)	68.3	28.7	8.9	12.9	5.0
	60대 이상	(36)	58.3	25.0	8.3	5.6	11.1
권역	수도권	(370)	65.1	31.1	26.5	14.6	5.7
	비수도권	(178)	60.7	39.9	18.0	15.7	5.1
지역	서울	(232)	66.8	33.6	25.9	12.9	5.6
	인천/경기	(138)	62.3	26.8	27.5	17.4	5.8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65.0	45.0	12.5	20.0	2.5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67.6	37.8	18.9	17.6	4.1
	전라(광주 포함)	(44)	45.5	38.6	22.7	13.6	9.1
	강원/제주	(20)	60.0	40.0	15.0	5.0	5.0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46.5	53.5	25.6	16.3	9.3
	5년~10년 미만	(122)	67.2	36.1	35.2	18.9	4.1
	10년~15년 미만	(128)	64.8	33.6	24.2	14.1	2.3
	15년~20년 미만	(82)	59.8	31.7	15.9	19.5	8.5
	20년~30년 미만	(106)	67.0	32.1	23.6	10.4	2.8
	30년 이상	(67)	65.7	23.9	10.4	10.4	11.9

바. 최근 예술 작업 중 특정한 시공간/불특정한 시공간의 비중

■ 최근 예술 작업 중 특정한 시공간/불특정한 시공간의 비중으로는 전체 비율을 100.0% 기준으로 했을 때 특정한 시공간 64.5%, 불특정한 시공간 35.5%로 나타남

- 최근 예술 작업 중 특정한 시공간의 비중이 높다는 응답은 연극 분야가 74.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술(67.1%), 무용(6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불특정한 시공간의 비중이 높다는 응답은 문학 분야가 60.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비평(44.0%), 영상(43.4%),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41.2%), 음악과 다원예술(각 36.6%)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6] 최근 예술 작업 중 특정한 시공간/불특정한 시공간의 비중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특정한 시공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은 연극(74.4%), 20대 이하(67.7%), 수도권(65.0%), 예술인 활동 5년~10년 미만(67.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불특정한 시공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은 문학(60.5%), 50대(39.3%), 비수도권(36.7%), 예술인 활동 10년~15년 미만(39.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6] 최근 예술 작업 중 특정한 시공간/불특정한 시공간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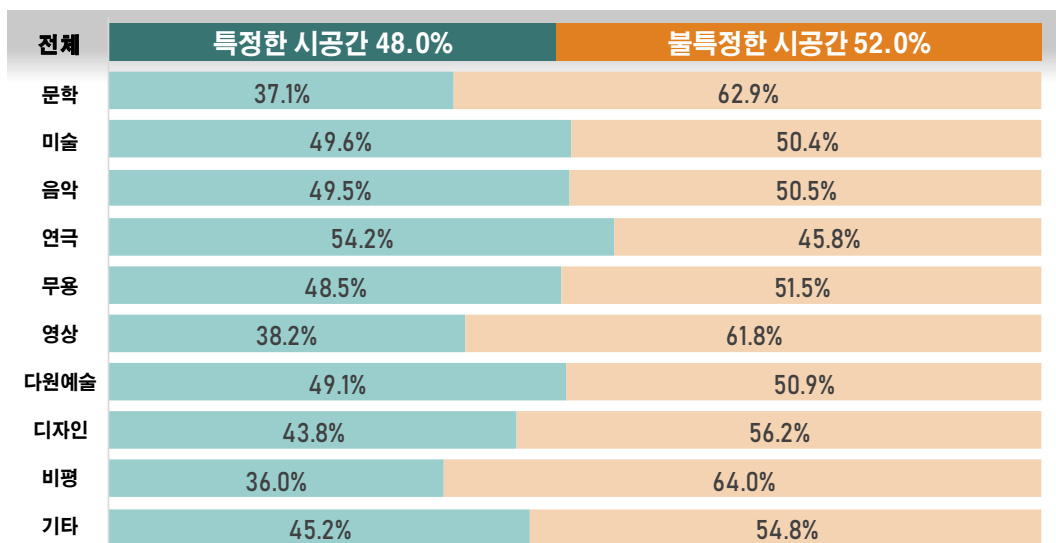
구 분 (단위 : %)		표본수 (명)	특정한 시공간 (무대, 전시장, 거리공연장 등 특정 시공간이 전제된 형태)	불특정한 시공간 (출판물, 유튜브, 온라인플랫폼 등 불특정한 시공간에서 작업하여 언제든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형태)
전 체		(548)	64.5	35.5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39.5	60.5
	미술	(68)	67.1	32.9
	음악	(109)	63.4	36.6
	연극(뮤지컬 포함)	(120)	74.4	25.6
	무용	(43)	66.0	34.0
	영상	(25)	56.6	43.4
	다원예술	(40)	63.4	36.6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58.8	41.2
	비평	(10)	56.0	44.0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65.7	34.3
성별	여성	(286)	64.4	35.6
	남성	(242)	63.7	36.3
	LGBTQ+	(5)	72.0	28.0
	응답거절	(15)	75.7	24.3
연령대	20대 이하	(39)	67.7	32.3
	30대	(187)	63.9	36.1
	40대	(185)	66.1	33.9
	50대	(101)	60.7	39.3
	60대 이상	(36)	65.8	34.2
권역	수도권	(370)	65.0	35.0
	비수도권	(178)	63.3	36.7
지역	서울	(232)	66.5	33.5
	인천/경기	(138)	62.6	37.4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64.1	35.9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60.3	39.7
	전라(광주 포함)	(44)	67.3	32.7
	강원/제주	(20)	64.0	36.0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61.9	38.1
	5년~10년 미만	(122)	67.3	32.7
	10년~15년 미만	(128)	60.6	39.4
	15년~20년 미만	(82)	65.3	34.7
	20년~30년 미만	(106)	66.8	33.2
	30년 이상	(67)	63.6	36.4

사. 10년 후 한국 문화예술계의 특정한 시공간/불특정한 시공간의 비중 변화

■ 10년 후 한국 문화예술계의 특정한 시공간/불특정한 시공간의 비중 변화로는 전체 비율을 100.0% 기준으로 했을 때 특정한 시공간 48.0%, 불특정한 시공간 52.0%로 나타남

- 10년 후 한국 문화예술계의 예술 작업 중 특정한 시공간의 비중이 높다는 응답은 연극 분야가 54.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술(49.6%), 음악(49.5%), 다원예술(49.1%), 무용(48.5%)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불특정한 시공간의 비중이 높다는 응답은 비평 분야가 6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문학(62.9%), 영상(61.8%), 디자인(56.2%)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7] 10년 후 한국 문화예술계의 특정한 시공간/불특정한 시공간의 비중 변화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특정한 시공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은 연극(54.2%), 60대 이상(54.4%), 수도권(48.2%), 예술인 활동 30년 이상(55.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불특정한 시공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은 비평(64.0%), 30대(54.9%), 비수도권(52.4%), 예술인 활동 5년 미만(5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7] 10년 후 한국 문화예술계의 특정한 시공간/불특정한 시공간의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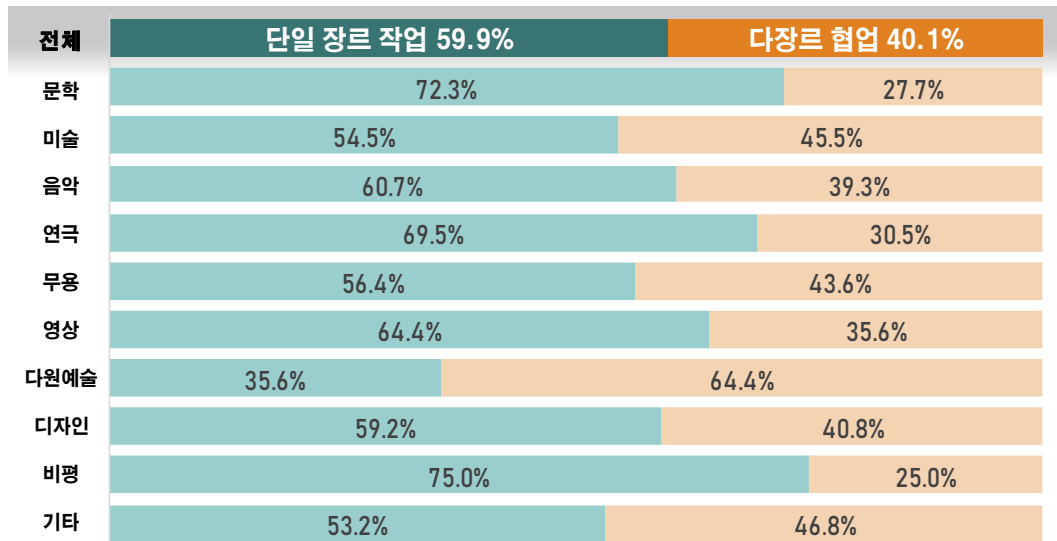
구 분 (단위 : %)		표본수 (명)	특정한 시공간 (무대, 전시장, 거리공연장 등 특정 시공간이 전제된 형태)	불특정한 시공간 (출판물, 유튜브, 온라인플랫폼 등 불특정한 시공간에서 작업하여 언제든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형태)
전 체		(548)	48.0	52.0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37.1	62.9
	미술	(68)	49.6	50.4
	음악	(109)	49.5	50.5
	연극(뮤지컬 포함)	(120)	54.2	45.8
	무용	(43)	48.5	51.5
	영상	(25)	38.2	61.8
	다원예술	(40)	49.1	50.9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43.8	56.2
	비평	(10)	36.0	64.0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45.2	54.8
성별	여성	(286)	46.5	53.5
	남성	(242)	49.8	50.2
	LGBTQ+	(5)	32.0	68.0
	응답거절	(15)	51.7	48.3
연령대	20대 이하	(39)	45.8	54.2
	30대	(187)	45.1	54.9
	40대	(185)	48.7	51.3
	50대	(101)	50.7	49.3
	60대 이상	(36)	54.4	45.6
권역	수도권	(370)	48.2	51.8
	비수도권	(178)	47.6	52.4
지역	서울	(232)	49.5	50.5
	인천/경기	(138)	46.0	54.0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45.0	55.0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47.5	52.5
	전라(광주 포함)	(44)	50.1	49.9
	강원/제주	(20)	47.5	52.5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42.9	57.1
	5년~10년 미만	(122)	47.9	52.1
	10년~15년 미만	(128)	44.5	55.5
	15년~20년 미만	(82)	51.0	49.0
	20년~30년 미만	(106)	47.1	52.9
	30년 이상	(67)	55.7	44.3

아. 최근 예술 작업 중 단일 장르 작업/다장르 협업의 비중

■ 최근 예술 작업 중 단일 장르 작업/다장르 협업의 비중으로는 전체 비율을 100.0% 기준으로 했을 때 단일 장르 작업 59.9%, 다장르 협업 40.1%로 나타남

- 최근 예술 작업 중 단일 장르 작업의 비중이 높다는 응답은 비평 분야가 7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문학(72.3%), 연극(69.5%), 영상(64.4%), 음악(60.7%)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다장르 협업의 비중이 높다는 응답은 다원예술 분야가 64.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술 (45.5%), 무용(43.6%), 디자인(40.8%)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8] 최근 예술 작업 중 단일 장르 작업/다장르 협업의 비중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단일 장르 작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은 비평(75.0%), 60대 이상(77.8%), 비수도권(60.2%), 예술인 활동 30년 이상(65.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장르 협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은 다원예술(64.4%), 20대 이하와 30대(각 44.4%), 수도권(40.3%), 예술인 활동 10년~15년 미만(42.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8] 최근 예술 작업 중 단일 장르 작업/다장르 협업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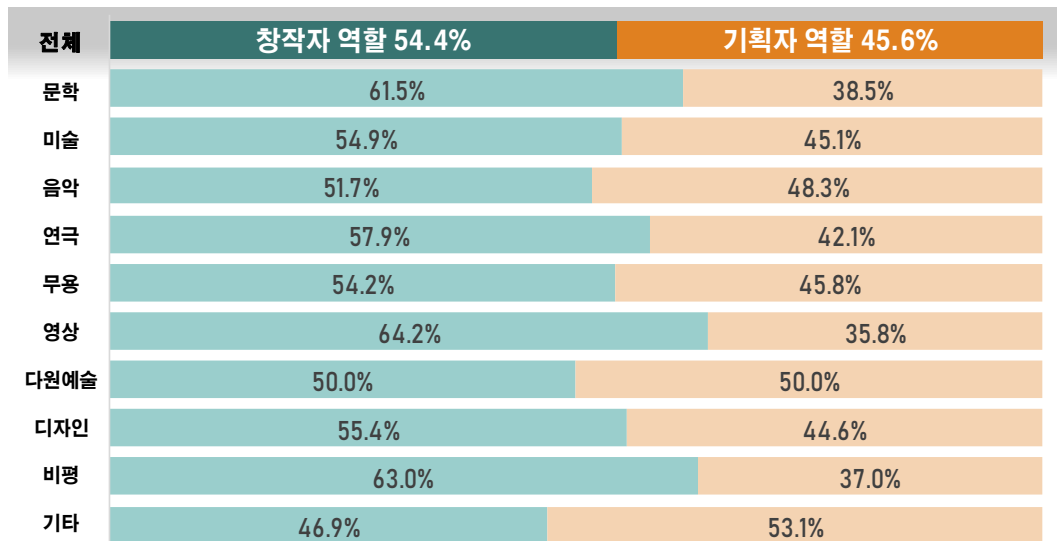
구 분 (단위 : %)		표본수 (명)	단일 장르 작업	다장르 협업
전 체		(548)	59.9	40.1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72.3	27.7
	미술	(68)	54.5	45.5
	음악	(109)	60.7	39.3
	연극(뮤지컬 포함)	(120)	69.5	30.5
	무용	(43)	56.4	43.6
	영상	(25)	64.4	35.6
	다원예술	(40)	35.6	64.4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59.2	40.8
	비평	(10)	75.0	25.0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53.2	46.8
성별	여성	(286)	57.6	42.4
	남성	(242)	62.3	37.7
	LGBTQ+	(5)	61.0	39.0
	응답거절	(15)	62.7	37.3
연령대	20대 이하	(39)	55.6	44.4
	30대	(187)	55.6	44.4
	40대	(185)	60.8	39.2
	50대	(101)	61.3	38.7
	60대 이상	(36)	77.8	22.2
권역	수도권	(370)	59.7	40.3
	비수도권	(178)	60.2	39.8
지역	서울	(232)	60.0	40.0
	인천/경기	(138)	59.1	40.9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64.0	36.0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62.0	38.0
	전라(광주 포함)	(44)	60.1	39.9
	강원/제주	(20)	46.0	54.0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58.7	41.3
	5년~10년 미만	(122)	60.3	39.7
	10년~15년 미만	(128)	57.5	42.5
	15년~20년 미만	(82)	60.1	39.9
	20년~30년 미만	(106)	58.8	41.2
	30년 이상	(67)	65.7	34.3

자. 최근 예술 작업 중 창작자 역할/기획자 역할의 비중

■ 최근 예술 작업 중 창작자 역할/기획자 역할의 비중으로는 전체 비율을 100.0% 기준으로 했을 때 창작자 역할 54.4%, 기획자 역할 45.6%로 나타남

- 최근 예술 작업 중 창작자 역할의 비중이 높다는 응답은 영상 분야가 64.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비평(63.0%), 문학(61.5%), 연극(57.9%), 디자인(55.4%)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획자 역할의 비중이 높다는 응답은 다원예술 분야가 5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음악(48.3%), 무용(45.8%), 미술(45.1%)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9] 최근 예술 작업 중 창작자 역할/기획자 역할의 비중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창작자 역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은 영상(64.2%), 60대 이상(64.9%), 수도권(54.9%), 예술인 활동 15년~20년 미만(5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기획자 역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은 다원예술(50.0%), 20대 이하(50.8%), 비수도권(46.5%), 예술인 활동 5년 미만(49.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9] 최근 예술 작업 중 창작자 역할/기획자 역할의 비중

구 분 (단위 : %)		표본수 (명)	창작자 역할	기획자 역할
전 체		(548)	54.4	45.6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61.5	38.5
	미술	(68)	54.9	45.1
	음악	(109)	51.7	48.3
	연극(뮤지컬 포함)	(120)	57.9	42.1
	무용	(43)	54.2	45.8
	영상	(25)	64.2	35.8
	다원예술	(40)	50.0	50.0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55.4	44.6
	비평	(10)	63.0	37.0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46.9	53.1	
성별	여성	(286)	52.2	47.8
	남성	(242)	56.4	43.6
	LGBTQ+	(5)	70.0	30.0
	응답거절	(15)	60.0	40.0
연령대	20대 이하	(39)	49.2	50.8
	30대	(187)	53.7	46.3
	40대	(185)	53.3	46.7
	50대	(101)	56.1	43.9
	60대 이상	(36)	64.9	35.1
권역	수도권	(370)	54.9	45.1
	비수도권	(178)	53.5	46.5
지역	서울	(232)	55.1	44.9
	인천/경기	(138)	54.5	45.5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57.8	42.3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49.5	50.5
	전라(광주 포함)	(44)	50.9	49.1
	강원/제주	(20)	65.3	34.8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50.2	49.8
	5년~10년 미만	(122)	52.7	47.3
	10년~15년 미만	(128)	54.4	45.6
	15년~20년 미만	(82)	57.1	42.9
	20년~30년 미만	(106)	54.4	45.6
	30년 이상	(67)	56.9	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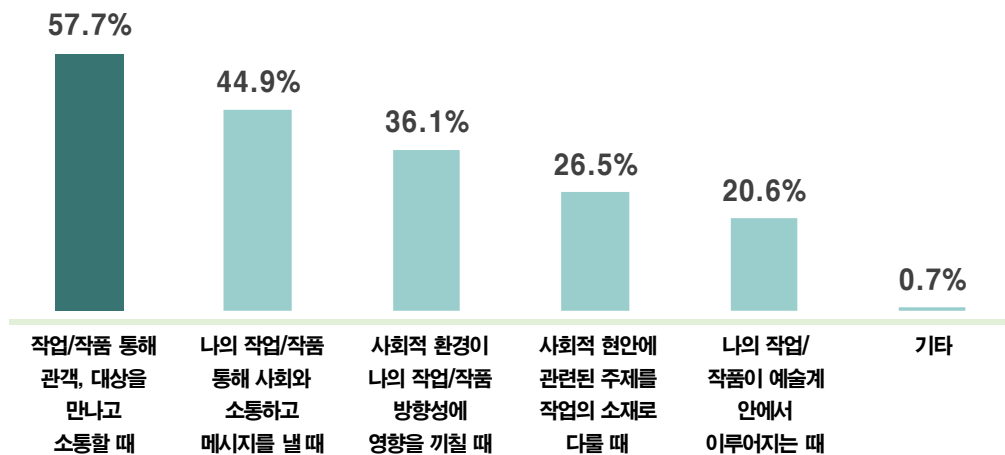
2. 예술인과 사회의 현재성

가. 예술인으로서 ‘예술 작업의 사회성’ 인식 계기

■ 예술인으로서 ‘예술 작업의 사회성’ 인식 계기(복수응답)로는 작업/작품 통해 관객, 대상을 만나고 소통할 때가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나의 작업/작품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메시지를 낼 때(44.9%), 사회적 환경이 나의 작업/작품 방향성에 영향을 끼칠 때(3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예술인으로서 ‘예술 작업의 사회성’ 인식 계기에서 작업/작품 통해 관객, 대상을 만나고 소통할 때라는 응답은 음악(69.7%), 영상(60.0%), 연극(59.2%), 다원예술(57.5%) 등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나의 작업/작품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메시지를 낼 때라는 응답은 연극과 다원예술(각 50.0%), 문학(48.8%), 미술(48.5%) 등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 사회적 환경이 나의 작업/작품 방향성에 영향을 끼칠 때라는 응답은 비평(70.0%), 미술(51.5%), 영상(44.0%), 다원예술(40.0%) 등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2-10] 예술인으로서 ‘예술 작업의 사회성’ 인식 계기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작업/작품 통해 관객, 대상을 만나고 소통할 때라는 응답은 음악(69.7%), 50대(62.4%), 수도권(59.2%), 예술인 활동 15년~20년 미만(61.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나의 작업/작품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메시지를 낼 때라는 응답은 연극과 다원예술(각 50.0%), 60대 이상(55.6%), 수도권(45.1%), 예술인 활동 30년 이상(5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10] 예술인으로서 '예술 작업의 사회적' 인식 계기

구 분 (단위 : %)		표본수 (명)	작업/ 작품통해 관객, 대상을 만나고 소통할 때	나의 작업/ 작품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메시지 를 낼 때	사회적 환경이 나의 작업/작품 방향성에 영향을 끼칠 때	사회적 현안에 관련된 주제를 작업의 소재로 다룰 때	나의 작업/ 작품이 예술계 안에서 이루어 지는 때	기타
전 체		(548)	57.7	44.9	36.1	26.5	20.6	0.7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53.7	48.8	24.4	22.0	17.1	0.0
	미술	(68)	50.0	48.5	51.5	20.6	19.1	0.0
	음악	(109)	69.7	40.4	24.8	15.6	25.7	0.0
	연극(뮤지컬 포함)	(120)	59.2	50.0	34.2	26.7	16.7	0.8
	무용	(43)	46.5	44.2	37.2	34.9	27.9	0.0
	영상	(25)	60.0	48.0	44.0	32.0	20.0	4.0
	다원예술	(40)	57.5	50.0	40.0	30.0	20.0	0.0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38.5	23.1	38.5	30.8	0.0	0.0
	비평	(10)	40.0	40.0	70.0	50.0	10.0	0.0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58.2	39.2	38.0	36.7	24.1	2.5
성별	여성	(286)	57.3	41.6	38.8	27.3	17.1	0.7
	남성	(242)	59.1	47.5	31.0	24.0	23.1	0.4
	LGBTQ+	(5)	40.0	60.0	40.0	60.0	60.0	0.0
	응답거절	(15)	46.7	60.0	66.7	40.0	33.3	6.7
연령대	20대 이하	(39)	41.0	53.8	41.0	33.3	33.3	0.0
	30대	(187)	61.5	41.2	41.2	26.7	24.6	1.1
	40대	(185)	56.2	41.6	33.5	26.5	16.8	0.5
	50대	(101)	62.4	50.5	34.7	29.7	11.9	1.0
	60대 이상	(36)	50.0	55.6	22.2	8.3	30.6	0.0
권역	수도권	(370)	59.2	45.1	38.1	24.1	21.4	0.8
	비수도권	(178)	54.5	44.4	32.0	31.5	19.1	0.6
지역	서울	(232)	59.9	45.7	39.7	24.1	23.3	0.9
	인천/경기	(138)	58.0	44.2	35.5	23.9	18.1	0.7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57.5	47.5	37.5	30.0	10.0	0.0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54.1	47.3	29.7	28.4	23.0	1.4
	전라(광주 포함)	(44)	50.0	50.0	25.0	38.6	25.0	0.0
	강원/제주	(20)	60.0	15.0	45.0	30.0	10.0	0.0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51.2	39.5	41.9	23.3	25.6	0.0
	5년~10년 미만	(122)	55.7	45.1	41.8	29.5	22.1	1.6
	10년~15년 미만	(128)	59.4	38.3	36.7	26.6	19.5	0.8
	15년~20년 미만	(82)	61.0	32.9	30.5	26.8	25.6	0.0
	20년~30년 미만	(106)	56.6	56.6	34.9	27.4	16.0	0.0
	30년 이상	(67)	59.7	56.7	29.9	20.9	17.9	1.5

나. 본인의 예술 작업에서 주요 소재 및 관심 현안

■ 본인의 예술 작업에서 주요 소재 및 관심 현안으로는 다양성이 1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11.0%), 예술과 기술(9.0%), 환경(7.7%), 로컬리티(7.1%), 기후문제(6.1%), 문화(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11] 본인의 예술 작업에서 주요 소재 및 관심 현안

No	주요 소재 및 관심 현안	사례수 (개)	비율 (%)	No	주요 소재 및 관심 현안	사례수 (개)	비율 (%)
1	다양성	99	13.1	14	코로나	13	1.7
2	사회	83	11.0	15	전통	11	1.5
3	예술과 기술	68	9.0	16	역사	11	1.5
4	환경	58	7.7	17	가족	10	1.3
5	로컬리티	54	7.1	18	인권	10	1.3
6	기후문제	46	6.1	19	장애	10	1.3
7	문화	38	5.0	20	청년	7	0.9
8	페미니즘	35	4.6	21	공동체, 휴머니즘	7	0.9
9	인간	34	4.5	22	대중성	7	0.9
10	도시문제	29	3.8	23	메타버스	4	0.5
11	소통	25	3.3	24	삶	4	0.5
12	개인	19	2.5	25	기타	57	7.5
13	소외계층	18	2.4	총계		7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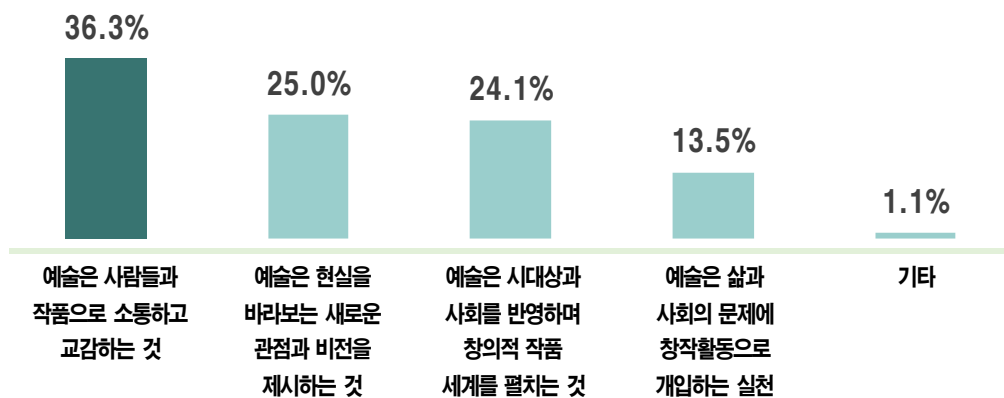
* 개인당 최대 3순위까지의 주제를 범주화 시킨 결과

다.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로는 예술은 사람들과 작품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예술은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25.0%), 예술은 시대상과 사회를 반영하며 창의적 작품 세계를 펼치는 것(2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서 예술은 사람들과 작품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음악(58.7%), 연극(43.3%), 디자인(38.5%), 무용(37.2%) 등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예술은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비평(40.0%), 미술(32.4%), 영상(32.0%) 등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 예술은 시대상과 사회를 반영하며 창의적 작품 세계를 펼치는 것이라는 응답은 영상(32.0%), 미술(30.9%), 문학(26.8%), 무용(25.6%) 등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2-11]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예술은 사람들과 작품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음악(58.7%), 40대(40.5%), 비수도권(39.9%), 예술인 활동 15년~20년 미만(43.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예술은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비평(40.0%), 20대 이하(30.8%), 수도권(26.5%), 예술인 활동 5년 미만(32.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12]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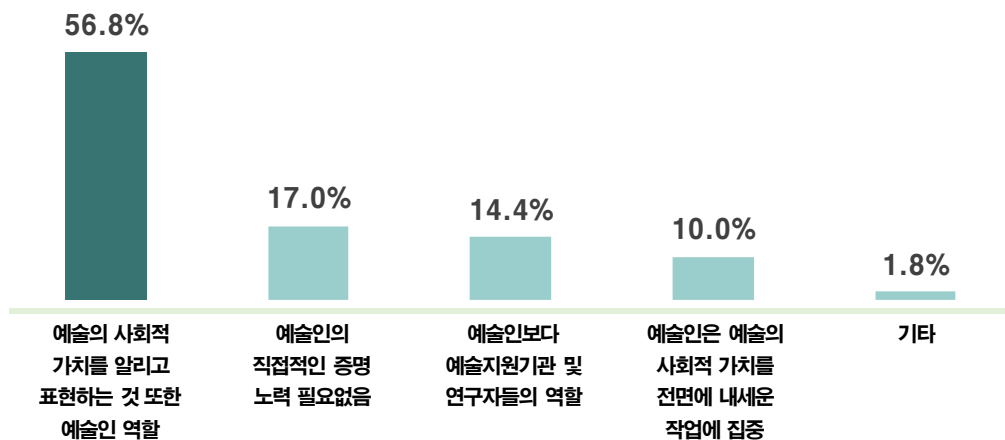
구 분 (단위 : %)		표본수 (명)	예술은 사람들과 작품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	예술은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	예술은 시대상과 사회를 반영하며 창의적 작품 세계를 펼치는 것	예술은 삶과 사회의 문제에 창작활동 으로 개입하는 실천	기타
전 체		(548)	36.3	25.0	24.1	13.5	1.1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34.1	19.5	26.8	19.5	0.0
	미술	(68)	14.7	32.4	30.9	20.6	1.5
	음악	(109)	58.7	14.7	22.0	4.6	0.0
	연극(뮤지컬 포함)	(120)	43.3	21.7	20.8	13.3	0.8
	무용	(43)	37.2	23.3	25.6	14.0	0.0
	영상	(25)	16.0	32.0	32.0	12.0	8.0
	다원예술	(40)	30.0	30.0	15.0	22.5	2.5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38.5	23.1	23.1	15.4	0.0
	비평	(10)	0.0	40.0	10.0	40.0	10.0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27.8	35.4	27.8	8.9	0.0
성별	여성	(286)	34.6	27.6	26.2	10.8	0.7
	남성	(242)	40.9	20.7	21.9	15.3	1.2
	LGBTQ+	(5)	20.0	20.0	20.0	40.0	0.0
	응답거절	(15)	0.0	46.7	20.0	26.7	6.7
연령대	20대 이하	(39)	28.2	30.8	28.2	10.3	2.6
	30대	(187)	38.0	23.0	23.0	13.9	2.1
	40대	(185)	40.5	25.4	20.5	13.0	0.5
	50대	(101)	29.7	28.7	28.7	12.9	0.0
	60대 이상	(36)	33.3	16.7	30.6	19.4	0.0
권역	수도권	(370)	34.6	26.5	23.2	14.6	1.1
	비수도권	(178)	39.9	21.9	25.8	11.2	1.1
지역	서울	(232)	35.3	28.0	22.8	12.5	1.3
	인천/경기	(138)	33.3	23.9	23.9	18.1	0.7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37.5	30.0	22.5	7.5	2.5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39.2	21.6	24.3	13.5	1.4
	전라(광주 포함)	(44)	45.5	13.6	31.8	9.1	0.0
	강원/제주	(20)	35.0	25.0	25.0	15.0	0.0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41.9	32.6	25.6	0.0	0.0
	5년~10년 미만	(122)	32.8	24.6	24.6	17.2	0.8
	10년~15년 미만	(128)	33.6	25.8	19.5	18.0	3.1
	15년~20년 미만	(82)	43.9	25.6	19.5	11.0	0.0
	20년~30년 미만	(106)	35.8	22.6	30.2	10.4	0.9
	30년 이상	(67)	35.8	22.4	26.9	14.9	0.0

라. ‘예술의 사회적 가치 강조’ 흐름에 대한 인식

■ ‘예술의 사회적 가치 강조’ 흐름에 대한 인식으로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표현하는 것 또한 예술인 역할이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예술인의 직접적인 증명 노력 필요없음(17.0%), 예술인보다 예술지원기관 및 연구자들의 역할(1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예술의 사회적 가치 강조’ 흐름에 대한 인식에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표현하는 것 또한 예술인 역할이라는 응답은 문학(73.2%), 비평(70.0%), 무용(60.5%), 다원예술(57.5%) 등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예술인의 직접적인 증명 노력 필요없음이라는 응답은 영상(28.0%), 디자인(23.1%), 연극(22.5%) 등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 예술인보다 예술지원기관 및 연구자들의 역할이라는 응답은 미술(22.1%), 영상(20.0%), 음악(18.3%), 무용(16.3%) 등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2-12] ‘예술의 사회적 가치 강조’ 흐름에 대한 인식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표현하는 것 또한 예술인 역할이라는 응답은 문학(73.2%), 50대(59.4%), 비수도권(61.2%), 예술인 활동 15년~20년 미만(59.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예술인의 직접적인 증명 노력 필요없음이라는 응답은 영상(28.0%), 30대(20.9%), 수도권(20.5%), 예술인 활동 10년~15년 미만(20.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13] '예술의 사회적 가치 강조' 흐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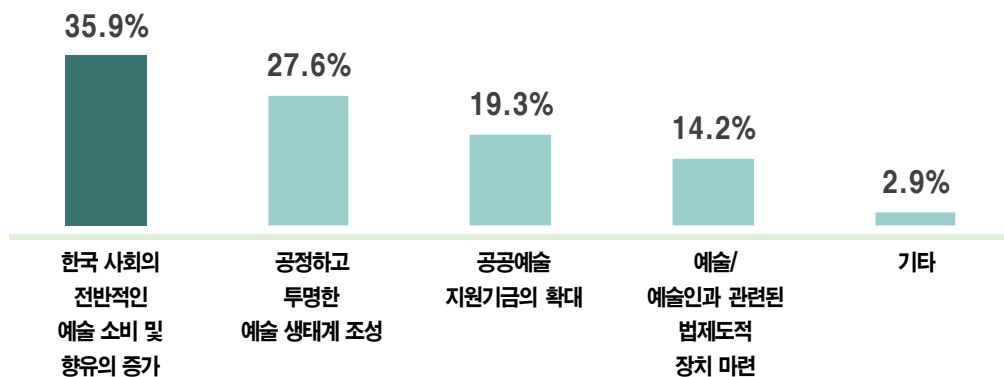
구 분 (단위 : %)		표본수 (명)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표현하는 것 또한 예술인 역할	예술인의 직접적인 증명 노력 필요없음	예술인 보다 예술지원 기관 및 연구자들의 역할	예술인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작업에 집중	기타
전 체		(548)	56.8	17.0	14.4	10.0	1.8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73.2	9.8	9.8	2.4	4.9
	미술	(68)	48.5	19.1	22.1	10.3	0.0
	음악	(109)	56.0	12.8	18.3	11.0	1.8
	연극(뮤지컬 포함)	(120)	56.7	22.5	8.3	10.8	1.7
	무용	(43)	60.5	11.6	16.3	9.3	2.3
	영상	(25)	36.0	28.0	20.0	12.0	4.0
	다원예술	(40)	57.5	17.5	12.5	10.0	2.5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53.8	23.1	15.4	7.7	0.0
	비평	(10)	70.0	10.0	0.0	10.0	10.0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59.5	15.2	13.9	11.4	0.0
성별	여성	(286)	60.1	15.0	15.4	7.7	1.7
	남성	(242)	52.1	19.4	13.2	13.2	2.1
	LGBTQ+	(5)	100.0	0.0	0.0	0.0	0.0
	응답거절	(15)	53.3	20.0	20.0	6.7	0.0
연령대	20대 이하	(39)	56.4	12.8	20.5	7.7	2.6
	30대	(187)	55.1	20.9	15.5	6.4	2.1
	40대	(185)	57.3	16.2	14.6	9.7	2.2
	50대	(101)	59.4	11.9	12.9	14.9	1.0
	60대 이상	(36)	55.6	19.4	5.6	19.4	0.0
권역	수도권	(370)	54.6	20.5	14.6	8.1	2.2
	비수도권	(178)	61.2	9.6	14.0	14.0	1.1
지역	서울	(232)	55.6	20.3	15.1	6.9	2.2
	인천/경기	(138)	52.9	21.0	13.8	10.1	2.2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55.0	7.5	17.5	17.5	2.5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56.8	12.2	16.2	14.9	0.0
	전라(광주 포함)	(44)	72.7	6.8	6.8	13.6	0.0
	강원/제주	(20)	65.0	10.0	15.0	5.0	5.0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55.8	16.3	14.0	11.6	2.3
	5년~10년 미만	(122)	54.1	17.2	22.1	4.9	1.6
	10년~15년 미만	(128)	56.3	20.3	12.5	7.8	3.1
	15년~20년 미만	(82)	59.8	19.5	11.0	9.8	0.0
	20년~30년 미만	(106)	57.5	14.2	11.3	15.1	1.9
	30년 이상	(67)	58.2	11.9	13.4	14.9	1.5

마. 예술의 사회적 가치 인정을 위한 필요 제반 조건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인정을 위한 필요 제반 조건으로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예술 소비 및 향유의 증가가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예술 생태계 조성(27.6%), 공공예술지원기금의 확대(1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인정을 위한 필요 제반 조건에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예술 소비 및 향유의 증가라는 응답은 연극(46.7%), 문학(39.0%), 미술(35.3%), 무용(32.6%) 등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공정하고 투명한 예술 생태계 조성이라는 응답은 디자인(46.2%), 영상(40.0%), 다원예술(32.5%) 등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 공공예술지원기금의 확대라는 응답은 무용(27.9%), 음악(24.8%), 미술(20.6%), 비평(20.0%) 등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2-13] 예술의 사회적 가치 인정을 위한 필요 제반 조건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예술 소비 및 향유의 증가라는 응답은 연극(46.7%), 60대 이상(41.7%), 수도권(40.0%), 예술인 활동 15년~20년 미만(42.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예술 생태계 조성이라는 응답은 디자인(46.2%), 50대(39.6%), 비수도권(31.5%), 예술인 활동 10년~15년 미만(3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14] 예술의 사회적 가치 인정을 위한 필요 제반 조건

구 분 (단위 : %)		표본수 (명)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예술 소비 및 향유의 증가	공정하고 투명한 예술 생태계 조성	공공 예술 지원 기금의 확대	예술/ 예술인과 관련된 법제도적 장치 마련	기타
전 체		(548)	35.9	27.6	19.3	14.2	2.9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39.0	31.7	19.5	7.3	2.4
	미술	(68)	35.3	26.5	20.6	14.7	2.9
	음악	(109)	31.2	28.4	24.8	13.8	1.8
	연극(뮤지컬 포함)	(120)	46.7	20.0	18.3	13.3	1.7
	무용	(43)	32.6	27.9	27.9	11.6	0.0
	영상	(25)	20.0	40.0	8.0	20.0	12.0
	다원예술	(40)	32.5	32.5	15.0	20.0	0.0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30.8	46.2	0.0	23.1	0.0
	비평	(10)	30.0	30.0	20.0	0.0	20.0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35.4	26.6	16.5	16.5	5.1
성별	여성	(286)	37.1	27.6	17.8	15.0	2.4
	남성	(242)	35.5	28.1	21.5	12.0	2.9
	LGBTQ+	(5)	40.0	20.0	20.0	20.0	0.0
	응답거절	(15)	20.0	20.0	13.3	33.3	13.3
연령대	20대 이하	(39)	35.9	20.5	17.9	20.5	5.1
	30대	(187)	39.0	21.4	22.5	13.4	3.7
	40대	(185)	38.4	29.7	15.1	15.1	1.6
	50대	(101)	23.8	39.6	18.8	14.9	3.0
	60대 이상	(36)	41.7	22.2	27.8	5.6	2.8
권역	수도권	(370)	40.0	25.7	18.4	13.2	2.7
	비수도권	(178)	27.5	31.5	21.3	16.3	3.4
지역	서울	(232)	43.1	23.3	15.9	14.2	3.4
	인천/경기	(138)	34.8	29.7	22.5	11.6	1.4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30.0	25.0	22.5	20.0	2.5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29.7	31.1	21.6	14.9	2.7
	전라(광주 포함)	(44)	25.0	36.4	25.0	11.4	2.3
	강원/제주	(20)	20.0	35.0	10.0	25.0	10.0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30.2	27.9	18.6	16.3	7.0
	5년~10년 미만	(122)	41.0	19.7	19.7	17.2	2.5
	10년~15년 미만	(128)	33.6	32.0	21.1	10.2	3.1
	15년~20년 미만	(82)	42.7	26.8	13.4	14.6	2.4
	20년~30년 미만	(106)	32.1	31.1	19.8	15.1	1.9
	30년 이상	(67)	32.8	28.4	22.4	13.4	3.0

바. 예술계의 위계, 권위, 폭력 등으로 예술 창작이 영향받은 경험사례

■ 예술계의 위계, 권위, 폭력 등으로 예술 창작이 영향받은 경험사례로는 예술계 위계, 권위에 의해 발생한 경험이 1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관공서, 공적지원, 기관 담당자 등 행정의 예산, 갑을관계로 인한 경험(8.9%), 학연, 지연, 인맥, 파벌 등 공정치 못한 요인으로 인한 경험(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15] 예술계의 위계, 권위, 폭력 등으로 예술 창작이 영향받은 경험사례

No	경험사례	사례수 (개)	비율 (%)
1	예술계 위계, 권위에 의해 발생한 경험	79	14.4
2	관공서, 공적지원, 기관 담당자 등 행정의 예산, 갑을관계로 인한 경험	49	8.9
3	학연, 지연, 인맥, 파벌 등 공정치 못한 요인으로 인한 경험	33	6.0
4	예술계 관례, 악습 등의 경험	34	6.2
5	단순 경험 존재	18	3.3
6	제도적 한계의 경험	16	2.9
7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의 관련 경험	14	2.6
8	젠더적 갈등, 차별에 의한 경험	8	1.5
9	세대 차별, 나이로 인한 경험	7	1.3
10	언어 폭력, 신체적 폭력 등의 경험	4	0.7
11	경험이 없음	286	52.2
총계		5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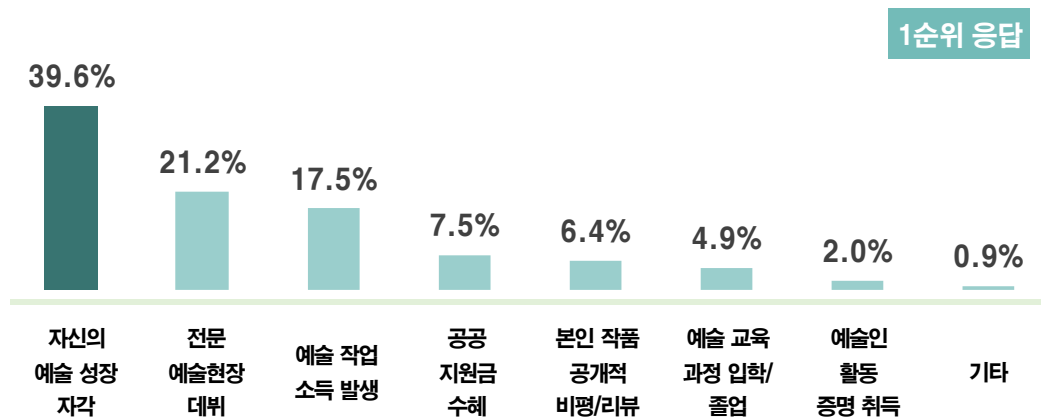
3. 예술인의 인식에 대한 현재성

가. 본인이 예술인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

■ 본인이 예술인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1순위 응답)로는 자신의 예술세계 성장을 자각한 때가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전문 예술현장(공연, 전시, 콩쿨 등) 데뷔(21.2%), 예술 작업 소득 발생(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본인이 예술인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1순위 응답)에서 자신의 예술세계 성장을 자각한 때라는 응답은 문학(46.3%), 미술(45.6%), 다원예술(45.0%), 무용(41.9%) 등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문 예술현장(공연, 전시, 콩쿨 등) 데뷔라는 응답은 음악(30.3%), 비평(30.0%), 영상(28.0%) 등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 예술 작업 소득 발생이라는 응답은 디자인(38.5%), 비평(30.0%), 미술(22.1%), 연극(19.2%) 등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2-14] 본인이 예술인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신의 예술세계 성장을 자각한 때라는 응답은 문학(46.3%), 60대 이상(55.6%), 수도권(40.5%), 예술인 활동 30년 이상(58.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문 예술현장(공연, 전시, 콩쿨 등) 데뷔라는 응답은 음악(30.3%), 40대(23.8%), 비수도권(23.0%), 예술인 활동 15년~20년 미만(28.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16] 본인이 예술인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 <1순위>

구 분 (단위 : %)		표본수 (명)	자신의 예술 성장 자각	전문 예술 현장 데뷔	예술 작업 소득 발생	공공 지원금 수혜	본인 작품 공개적 비평/ 리뷰	예술 교육 과정 입학/ 졸업	예술인 활동 증명 취득	기타
전 체		(548)	39.6	21.2	17.5	7.5	6.4	4.9	2.0	0.9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46.3	12.2	9.8	12.2	17.1	0.0	2.4	0.0
	미술	(68)	45.6	10.3	22.1	4.4	7.4	4.4	2.9	2.9
	음악	(109)	37.6	30.3	18.3	4.6	2.8	6.4	0.0	0.0
	연극(뮤지컬 포함)	(120)	37.5	19.2	19.2	4.2	9.2	5.8	3.3	1.7
	무용	(43)	41.9	20.9	9.3	18.6	2.3	4.7	2.3	0.0
	영상	(25)	32.0	28.0	12.0	12.0	4.0	4.0	4.0	4.0
	다원예술	(40)	45.0	20.0	15.0	15.0	0.0	2.5	2.5	0.0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23.1	15.4	38.5	0.0	7.7	7.7	7.7	0.0
	비평	(10)	20.0	30.0	30.0	0.0	0.0	20.0	0.0	0.0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40.5	24.1	16.5	7.6	7.6	3.8	0.0	0.0
성별	여성	(286)	36.4	22.0	19.6	10.1	3.5	5.2	2.4	0.7
	남성	(242)	43.0	21.1	15.3	4.5	9.1	4.5	1.7	0.8
	LGBTQ+	(5)	20.0	0.0	40.0	0.0	20.0	20.0	0.0	0.0
	응답거절	(15)	53.3	13.3	6.7	6.7	13.3	0.0	0.0	6.7
연령대	20대 이하	(39)	35.9	17.9	33.3	7.7	2.6	0.0	2.6	0.0
	30대	(187)	33.2	23.0	20.9	6.4	5.9	6.4	3.7	0.5
	40대	(185)	39.5	23.8	15.7	9.2	4.3	5.4	0.5	1.6
	50대	(101)	47.5	16.8	12.9	5.9	10.9	5.0	1.0	0.0
	60대 이상	(36)	55.6	13.9	5.6	8.3	11.1	0.0	2.8	2.8
권역	수도권	(370)	40.5	20.3	17.8	7.3	5.7	5.4	1.9	1.1
	비수도권	(178)	37.6	23.0	16.9	7.9	7.9	3.9	2.2	0.6
지역	서울	(232)	36.6	22.4	19.8	7.3	6.9	3.0	2.2	1.7
	인천/경기	(138)	47.1	16.7	14.5	7.2	3.6	9.4	1.4	0.0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42.5	17.5	12.5	7.5	7.5	7.5	5.0	0.0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31.1	27.0	17.6	10.8	8.1	2.7	2.7	0.0
	전라(광주 포함)	(44)	36.4	29.5	18.2	4.5	9.1	0.0	0.0	2.3
	강원/제주	(20)	55.0	5.0	20.0	5.0	5.0	10.0	0.0	0.0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32.6	20.9	30.2	7.0	4.7	0.0	4.7	0.0
	5년~10년 미만	(122)	41.8	23.0	14.8	3.3	5.7	7.4	2.5	1.6
	10년~15년 미만	(128)	32.8	18.8	21.1	13.3	7.8	3.1	2.3	0.8
	15년~20년 미만	(82)	31.7	28.0	20.7	7.3	2.4	4.9	3.7	1.2
	20년~30년 미만	(106)	42.5	19.8	11.3	8.5	7.5	9.4	0.0	0.9
	30년 이상	(67)	58.2	16.4	13.4	3.0	9.0	0.0	0.0	0.0

[표 2-17] 본인이 예술인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 <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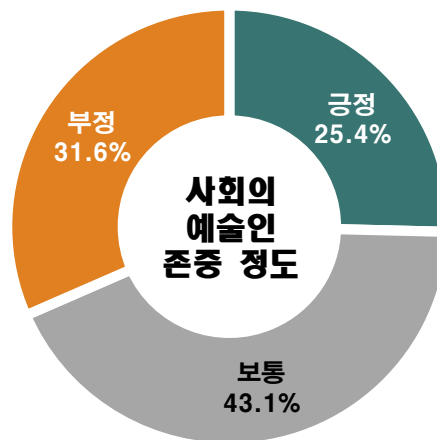
구 분 (단위 : %)		표본수 (명)	자신의 예술 성장 자각	전문 예술 현장 데뷔	예술 작업 소득 발생	공공 지원금 수혜	본인 작품 공개적 비평/ 리뷰	예술 교육 과정 입학/ 졸업	예술인 활동 증명 취득	기타
전 체		(548)	71.4	64.2	46.0	45.3	40.1	16.6	13.5	2.9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75.6	51.2	36.6	65.9	46.3	19.5	0.0	4.9
	미술	(68)	75.0	63.2	38.2	50.0	38.2	16.2	16.2	2.9
	음악	(109)	70.6	69.7	56.0	42.2	32.1	13.8	14.7	0.9
	연극(뮤지컬 포함)	(120)	70.8	61.7	43.3	47.5	42.5	19.2	11.7	3.3
	무용	(43)	65.1	53.5	39.5	34.9	67.4	30.2	9.3	0.0
	영상	(25)	68.0	60.0	52.0	52.0	28.0	16.0	8.0	16.0
	다원예술	(40)	75.0	75.0	50.0	25.0	55.0	15.0	5.0	0.0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69.2	84.6	61.5	46.2	7.7	15.4	15.4	0.0
	비평	(10)	50.0	60.0	70.0	70.0	0.0	10.0	40.0	0.0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73.4	67.1	41.8	41.8	38.0	10.1	24.1	3.8
성별	여성	(286)	66.1	67.1	46.5	40.9	45.5	18.2	14.0	1.7
	남성	(242)	77.3	61.6	46.7	48.8	34.7	14.0	13.2	3.7
	LGBTQ+	(5)	80.0	80.0	0.0	60.0	20.0	40.0	20.0	0.0
	응답거절	(15)	73.3	46.7	40.0	66.7	33.3	20.0	6.7	13.3
연령대	20대 이하	(39)	76.9	74.4	38.5	41.0	38.5	15.4	12.8	2.6
	30대	(187)	64.2	67.4	48.1	42.8	36.4	20.9	18.2	2.1
	40대	(185)	72.4	62.7	49.2	43.2	42.7	15.7	10.8	3.2
	50대	(101)	78.2	61.4	42.6	50.5	40.6	11.9	11.9	3.0
	60대 이상	(36)	77.8	52.8	36.1	58.3	47.2	13.9	8.3	5.6
권역	수도권	(370)	69.5	67.8	45.7	44.1	41.9	14.9	13.0	3.2
	비수도권	(178)	75.3	56.7	46.6	47.8	36.5	20.2	14.6	2.2
지역	서울	(232)	68.1	69.4	46.6	46.6	39.2	15.5	11.2	3.4
	인천/경기	(138)	71.7	65.2	44.2	39.9	46.4	13.8	15.9	2.9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85.0	55.0	35.0	50.0	40.0	17.5	12.5	5.0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64.9	60.8	52.7	47.3	33.8	25.7	14.9	0.0
	전라(광주 포함)	(44)	81.8	50.0	45.5	50.0	38.6	15.9	13.6	4.5
	강원/제주	(20)	80.0	60.0	50.0	40.0	35.0	15.0	20.0	0.0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65.1	72.1	48.8	34.9	46.5	16.3	14.0	2.3
	5년~10년 미만	(122)	69.7	67.2	46.7	49.2	35.2	14.8	14.8	2.5
	10년~15년 미만	(128)	66.4	63.3	41.4	47.7	42.2	21.1	15.6	2.3
	15년~20년 미만	(82)	72.0	72.0	52.4	28.0	41.5	19.5	13.4	1.2
	20년~30년 미만	(106)	75.5	51.9	47.2	49.1	42.5	14.2	15.1	4.7
	30년 이상	(67)	80.6	65.7	41.8	55.2	35.8	11.9	4.5	4.5

나. 사회의 예술인 존중 정도

■ 사회의 예술인 존중 정도는 긍정 평가층(매우 긍정 3.1% + 긍정 7.8% + 다소 긍정 14.4%)이 25.4%로 나타났고 부정 평가층(매우 부정 7.1% + 부정 11.7% + 다소 부정 12.8%) 31.6%보다 6.2%p 낮게 나타남

- 사회의 예술인 존중 정도에 대한 긍정 평가(매우 긍정 + 긍정 + 다소 긍정)는 영상 분야가 36.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술(32.4%), 문학(26.8%), 음악(26.6%)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보통이라는 응답은 다원예술 분야가 4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연극(뮤지컬 포함) (46.7%), 무용(46.5%)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정 평가(매우 부정 + 부정 + 다소 부정)는 비평이 5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디자인 (무대/조명/음향 등)(46.2%), 연극(뮤지컬 포함)(34.2%), 음악(33.0%)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5] 사회의 예술인 존중 정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층(매우 긍정 + 긍정 + 다소 긍정)은 영상(36.0%), 40대 (28.1%), 수도권(25.4%), 예술인 활동 15년~20년 미만(28.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부정 평가층(매우 부정 + 부정 + 다소 부정)은 비평(50.0%), 30대 (35.8%), 수도권(32.7%), 예술인 활동 15년~20년 미만(34.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18] 사회의 예술인 존중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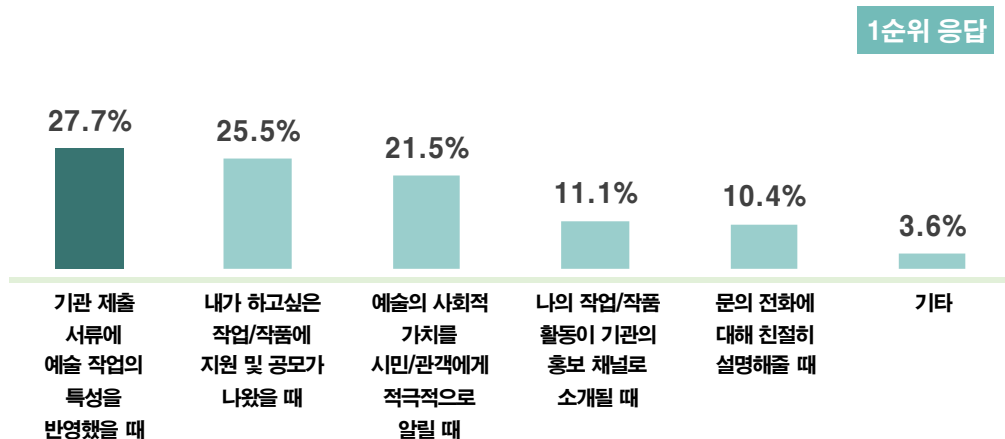
구 분 (단위 : %)	표본수 (명)	매우 부정	부정	다소 부정	보통	다소 긍정	긍정	매우 긍정	합계		7점 평점 (점)	
									부정 (합)	긍정 (합)		
전 체	(548)	7.1	11.7	12.8	43.1	14.4	7.8	3.1	31.6	25.4	3.82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19.5	9.8	2.4	41.5	17.1	7.3	2.4	31.7	26.8	3.59
	미술	(68)	4.4	14.7	11.8	36.8	17.6	10.3	4.4	30.9	32.4	3.97
	음악	(109)	7.3	11.0	14.7	40.4	14.7	6.4	5.5	33.0	26.6	3.85
	연극(뮤지컬 포함)	(120)	5.8	11.7	16.7	46.7	9.2	8.3	1.7	34.2	19.2	3.73
	무용	(43)	7.0	14.0	9.3	46.5	14.0	9.3	0.0	30.2	23.3	3.74
	영상	(25)	12.0	4.0	8.0	40.0	20.0	12.0	4.0	24.0	36.0	4.04
	다원예술	(40)	7.5	20.0	2.5	47.5	15.0	7.5	0.0	30.0	22.5	3.65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23.1	15.4	7.7	38.5	7.7	0.0	7.7	46.2	15.4	3.23
	비평	(10)	0.0	30.0	20.0	40.0	10.0	0.0	0.0	50.0	10.0	3.30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1.3	5.1	19.0	45.6	17.7	7.6	3.8	25.3	29.1	4.11
성별	여성	(286)	5.9	13.3	10.5	43.7	16.8	5.9	3.8	29.7	26.6	3.85
	남성	(242)	7.9	10.3	14.9	42.1	12.4	9.9	2.5	33.1	24.8	3.81
	LGBTQ+	(5)	20.0	0.0	20.0	60.0	0.0	0.0	0.0	40.0	0.0	3.20
	응답거절	(15)	13.3	6.7	20.0	40.0	6.7	13.3	0.0	40.0	20.0	3.60
연령대	20대 이하	(39)	2.6	10.3	17.9	48.7	15.4	2.6	2.6	30.8	20.5	3.82
	30대	(187)	7.0	12.3	16.6	39.0	15.0	8.0	2.1	35.8	25.1	3.75
	40대	(185)	7.6	14.1	10.3	40.0	14.1	8.1	5.9	31.9	28.1	3.87
	50대	(101)	6.9	9.9	9.9	51.5	12.9	8.9	0.0	26.7	21.8	3.80
	60대 이상	(36)	11.1	2.8	8.3	50.0	16.7	8.3	2.8	22.2	27.8	3.94
권역	수도권	(370)	7.0	12.7	13.0	41.9	15.4	7.0	3.0	32.7	25.4	3.79
	비수도권	(178)	7.3	9.6	12.4	45.5	12.4	9.6	3.4	29.2	25.3	3.88
지역	서울	(232)	6.9	11.2	14.7	40.1	16.4	7.8	3.0	32.8	27.2	3.83
	인천/경기	(138)	7.2	15.2	10.1	44.9	13.8	5.8	2.9	32.6	22.5	3.72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7.5	10.0	15.0	42.5	12.5	10.0	2.5	32.5	25.0	3.83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6.8	8.1	12.2	47.3	12.2	9.5	4.1	27.0	25.7	3.95
	전라(광주 포함)	(44)	6.8	9.1	6.8	52.3	18.2	4.5	2.3	22.7	25.0	3.89
	강원/제주	(20)	10.0	15.0	20.0	30.0	0.0	20.0	5.0	45.0	25.0	3.75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9.3	9.3	11.6	55.8	7.0	4.7	2.3	30.2	14.0	3.65
	5년~10년 미만	(122)	6.6	14.8	12.3	38.5	19.7	4.9	3.3	33.6	27.9	3.78
	10년~15년 미만	(128)	4.7	13.3	10.9	45.3	14.8	8.6	2.3	28.9	25.8	3.88
	15년~20년 미만	(82)	6.1	7.3	20.7	37.8	12.2	11.0	4.9	34.1	28.0	3.95
	20년~30년 미만	(106)	8.5	14.2	11.3	41.5	13.2	8.5	2.8	34.0	24.5	3.74
	30년 이상	(67)	10.4	6.0	10.4	47.8	13.4	9.0	3.0	26.9	25.4	3.87

다.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는 사례

■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는 사례(1순위 응답)로는 기관 제출 서류에 예술 작업의 특성을 반영했을 때가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내가 하고싶은 작업/작품에 지원 및 공모가 나왔을 때(25.5%),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시민/관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때(2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는 사례(1순위 응답)에서 기관 제출 서류에 예술 작업의 특성을 반영했을 때라는 응답은 미술(35.3%), 음악(30.3%), 다원예술(27.5%), 연극(25.8%) 등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내가 하고싶은 작업/작품에 지원 및 공모가 나왔을 때라는 응답은 문학(34.1%), 연극(31.7%), 비평(30.0%) 등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시민/관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때라는 응답은 비평(40.0%), 디자인(23.1%), 문학(22.0%), 무용(20.9%) 등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2-16]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는 사례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기관 제출 서류에 예술 작업의 특성을 반영했을 때라는 응답은 미술(35.3%), 20대 이하(35.9%), 수도권(30.8%), 예술인 활동 5년 미만(39.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내가 하고싶은 작업/작품에 지원 및 공모가 나왔을 때라는 응답은 문학(34.1%), 60대 이상(27.8%), 수도권(27.6%), 예술인 활동 15년~20년 미만(29.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19]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는 사례 <1순위>

구분 (단위 : %)	표본수 (명)	기관 제출 서류에 예술 작업의 특성을 반영 했을 때	내가 하고싶은 작업/작품 에 지원 및 공모가 나왔을 때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시민/ 관객에게 적극적으 로 알릴 때	나의 작업/작품 활동이 기관의 홍보 채널로 소개될 때	문의 전화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줄 때	기타	
전체	(548)	27.7	25.5	21.5	11.1	10.4	3.6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17.1	34.1	22.0	17.1	4.9	4.9
	미술	(68)	35.3	23.5	17.6	11.8	10.3	1.5
	음악	(109)	30.3	23.9	19.3	14.7	9.2	2.8
	연극(뮤지컬 포함)	(120)	25.8	31.7	20.8	5.0	11.7	5.0
	무용	(43)	25.6	16.3	20.9	20.9	14.0	2.3
	영상	(25)	24.0	28.0	12.0	8.0	12.0	16.0
	다원예술	(40)	27.5	27.5	20.0	7.5	17.5	0.0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23.1	15.4	23.1	7.7	23.1	7.7
	비평	(10)	20.0	30.0	40.0	0.0	10.0	0.0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30.4	20.3	30.4	11.4	5.1	2.5
성별	여성	(286)	30.4	25.5	18.5	12.2	10.8	2.4
	남성	(242)	24.4	26.0	25.2	9.9	9.9	4.5
	LGBTQ+	(5)	0.0	20.0	60.0	0.0	20.0	0.0
	응답거절	(15)	40.0	20.0	6.7	13.3	6.7	13.3
연령대	20대 이하	(39)	35.9	23.1	20.5	12.8	7.7	0.0
	30대	(187)	27.3	27.3	16.6	12.8	12.8	3.2
	40대	(185)	33.0	25.4	21.1	7.0	10.3	3.2
	50대	(101)	19.8	22.8	31.7	12.9	5.9	6.9
	60대 이상	(36)	16.7	27.8	22.2	16.7	13.9	2.8
권역	수도권	(370)	30.8	27.6	17.8	10.5	9.5	3.8
	비수도권	(178)	21.3	21.3	29.2	12.4	12.4	3.4
지역	서울	(232)	30.6	27.2	16.4	11.2	10.8	3.9
	인천/경기	(138)	31.2	28.3	20.3	9.4	7.2	3.6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27.5	22.5	25.0	22.5	0.0	2.5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21.6	21.6	28.4	9.5	16.2	2.7
	전라(광주 포함)	(44)	18.2	22.7	34.1	11.4	13.6	0.0
	강원/제주	(20)	15.0	15.0	30.0	5.0	20.0	15.0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39.5	16.3	16.3	16.3	11.6	0.0
	5년~10년 미만	(122)	27.9	27.0	21.3	8.2	12.3	3.3
	10년~15년 미만	(128)	32.0	24.2	19.5	9.4	9.4	5.5
	15년~20년 미만	(82)	32.9	29.3	13.4	14.6	8.5	1.2
	20년~30년 미만	(106)	24.5	24.5	25.5	9.4	12.3	3.8
	30년 이상	(67)	10.4	28.4	32.8	14.9	7.5	6.0

[표 2-20]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는 사례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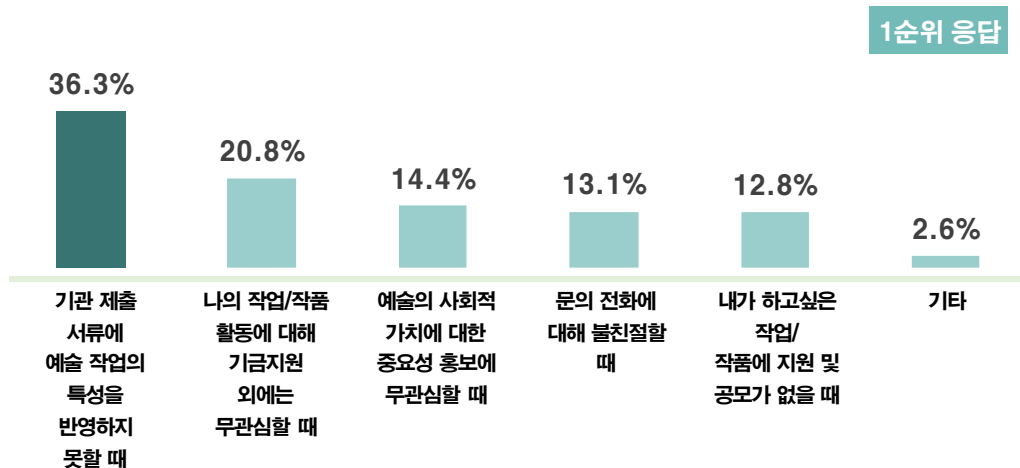
구 분 (단위 : %)		표본수 (명)	기관 제출 서류에 예술 작업의 특성을 반영 했을 때	내가 하고싶은 작업/작품 에 지원 및 공모가 나왔을 때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시민/ 관객에게 적극적으 로 알릴 때	나의 작업/작품 활동이 기관의 홍보 채널로 소개될 때	문의 전화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줄 때	기타
전 체		(548)	50.5	48.7	46.9	28.5	19.9	5.5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31.7	46.3	63.4	36.6	17.1	4.9
	미술	(68)	66.2	41.2	50.0	22.1	17.6	2.9
	음악	(109)	49.5	53.2	41.3	33.0	19.3	3.7
	연극(뮤지컬 포함)	(120)	50.0	55.0	42.5	20.8	23.3	8.3
	무용	(43)	39.5	48.8	51.2	34.9	23.3	2.3
	영상	(25)	40.0	44.0	36.0	36.0	24.0	20.0
	다원예술	(40)	60.0	55.0	37.5	22.5	22.5	2.5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61.5	30.8	38.5	30.8	30.8	7.7
	비평	(10)	40.0	60.0	70.0	20.0	10.0	0.0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53.2	40.5	54.4	32.9	13.9	5.1
성별	여성	(286)	55.9	49.3	42.7	30.1	18.2	3.8
	남성	(242)	45.0	48.3	52.1	26.9	21.5	6.2
	LGBTQ+	(5)	40.0	40.0	60.0	40.0	20.0	0.0
	응답거절	(15)	40.0	46.7	40.0	20.0	26.7	26.7
연령대	20대 이하	(39)	56.4	43.6	43.6	43.6	12.8	0.0
	30대	(187)	51.9	51.3	42.2	29.4	19.8	5.3
	40대	(185)	56.8	48.1	47.0	22.2	20.0	5.9
	50대	(101)	38.6	46.5	54.5	31.7	20.8	7.9
	60대 이상	(36)	38.9	50.0	52.8	30.6	25.0	2.8
권역	수도권	(370)	51.9	52.2	42.2	29.5	18.6	5.7
	비수도권	(178)	47.8	41.6	56.7	26.4	22.5	5.1
지역	서울	(232)	51.7	50.4	41.4	29.7	19.8	6.9
	인천/경기	(138)	52.2	55.1	43.5	29.0	16.7	3.6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57.5	35.0	55.0	27.5	17.5	7.5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45.9	41.9	59.5	25.7	24.3	2.7
	전라(광주 포함)	(44)	40.9	52.3	56.8	29.5	18.2	2.3
	강원/제주	(20)	50.0	30.0	50.0	20.0	35.0	15.0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55.8	41.9	46.5	41.9	14.0	0.0
	5년~10년 미만	(122)	52.5	50.8	44.3	26.2	19.7	6.6
	10년~15년 미만	(128)	53.1	49.2	46.9	29.7	14.8	6.3
	15년~20년 미만	(82)	64.6	57.3	32.9	25.6	17.1	2.4
	20년~30년 미만	(106)	42.5	40.6	54.7	27.4	28.3	6.6
	30년 이상	(67)	34.3	50.7	56.7	26.9	23.9	7.5

라.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지 못하는 사례

■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지 못하는 사례(1순위 응답)로는 기관 제출 서류에 예술 작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때가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나의 작업/작품 활동에 대해 기금지원 외에는 무관심할 때(20.8%),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홍보에 무관심할 때(1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지 못하는 사례(1순위 응답)에서 기관 제출 서류에 예술 작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때라는 응답은 비평(50.0%), 문학(48.8%), 다원예술(47.5%), 미술(39.7%) 등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나의 작업/작품 활동에 대해 기금지원 외에는 무관심할 때라는 응답은 디자인(38.5%), 연극(28.3%), 무용(20.9%) 등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홍보에 무관심할 때라는 응답은 디자인(23.1%), 문학(19.5%), 영상(16.0%), 음악(15.6%) 등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2-17]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지 못하는 사례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기관 제출 서류에 예술 작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때라는 응답은 비평(50.0%), 60대 이상(47.2%), 비수도권(38.2%), 예술인 활동 5년 미만(48.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나의 작업/작품 활동에 대해 기금지원 외에는 무관심할 때라는 응답은 디자인(38.5%), 40대(27.0%), 예술인 활동 30년 이상(26.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21]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지 못하는 사례 <1순위>

구 분 (단위 : %)	표본수 (명)	기관 제출 서류에 예술 작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때	나의 작업/작품 활동에 대해 기금지원 외에는 무관심할 때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홍보에 무관심할 때	문의 전화에 대해 불친절할 때	내가 하고싶은 작업/작품 에 지원 및 공모가 없을 때	기타	
전 체	(548)	36.3	20.8	14.4	13.1	12.8	2.6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48.8	12.2	19.5	9.8	9.8	0.0
	미술	(68)	39.7	20.6	11.8	7.4	19.1	1.5
	음악	(109)	34.9	18.3	15.6	17.4	10.1	3.7
	연극(뮤지컬 포함)	(120)	31.7	28.3	10.8	11.7	15.0	2.5
	무용	(43)	34.9	20.9	11.6	25.6	7.0	0.0
	영상	(25)	32.0	12.0	16.0	12.0	16.0	12.0
	다원예술	(40)	47.5	12.5	15.0	12.5	12.5	0.0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7.7	38.5	23.1	7.7	15.4	7.7
	비평	(10)	50.0	20.0	10.0	10.0	0.0	10.0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35.4	21.5	17.7	11.4	12.7	1.3
성별	여성	(286)	34.3	23.1	11.5	14.3	14.7	2.1
	남성	(242)	39.7	17.4	17.4	12.8	9.9	2.9
	LGBTQ+	(5)	20.0	20.0	40.0	0.0	20.0	0.0
	응답거절	(15)	26.7	33.3	13.3	0.0	20.0	6.7
연령대	20대 이하	(39)	38.5	10.3	10.3	23.1	15.4	2.6
	30대	(187)	35.8	17.6	13.4	16.0	13.4	3.7
	40대	(185)	31.4	27.0	15.1	11.9	13.5	1.1
	50대	(101)	41.6	23.8	15.8	8.9	5.9	4.0
	60대 이상	(36)	47.2	8.3	16.7	5.6	22.2	0.0
권역	수도권	(370)	35.4	20.8	14.1	13.5	13.8	2.4
	비수도권	(178)	38.2	20.8	15.2	12.4	10.7	2.8
지역	서울	(232)	35.3	21.1	15.5	14.7	10.8	2.6
	인천/경기	(138)	35.5	20.3	11.6	11.6	18.8	2.2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47.5	32.5	5.0	5.0	5.0	5.0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32.4	23.0	12.2	17.6	12.2	2.7
	전라(광주 포함)	(44)	36.4	11.4	27.3	9.1	15.9	0.0
	강원/제주	(20)	45.0	10.0	20.0	15.0	5.0	5.0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48.8	14.0	4.7	14.0	16.3	2.3
	5년~10년 미만	(122)	32.0	19.7	16.4	9.8	18.9	3.3
	10년~15년 미만	(128)	33.6	26.6	11.7	13.3	12.5	2.3
	15년~20년 미만	(82)	32.9	23.2	17.1	15.9	11.0	0.0
	20년~30년 미만	(106)	41.5	12.3	16.0	18.9	6.6	4.7
	30년 이상	(67)	37.3	26.9	16.4	6.0	11.9	1.5

[표 2-22]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 존중, 배려를 느끼지 못하는 사례 <1+2순위>

구 분 (단위 : %)	표본수 (명)	기관 제출 서류에 예술 작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때	나의 작업/작품 활동에 대해 기금지원 외에는 무관심할 때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홍보에 무관심할 때	내가 하고싶은 작업/작품 에 지원 및 공모가 없을 때	문의 전화에 대해 불친절할 때	기타	
전 체	(548)	58.2	50.0	37.4	29.2	19.9	5.3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68.3	39.0	53.7	19.5	14.6	4.9
	미술	(68)	60.3	52.9	36.8	30.9	16.2	2.9
	음악	(109)	55.0	45.9	36.7	29.4	26.6	6.4
	연극(뮤지컬 포함)	(120)	60.0	51.7	30.0	35.0	17.5	5.8
	무용	(43)	53.5	55.8	46.5	18.6	25.6	0.0
	영상	(25)	44.0	32.0	48.0	40.0	16.0	20.0
	다원예술	(40)	72.5	52.5	25.0	30.0	17.5	2.5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46.2	69.2	46.2	15.4	15.4	7.7
	비평	(10)	60.0	40.0	30.0	50.0	10.0	10.0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54.4	55.7	39.2	25.3	21.5	3.8
성별	여성	(286)	55.9	55.9	31.8	29.7	22.4	4.2
	남성	(242)	60.3	42.6	44.6	28.1	18.6	5.8
	LGBTQ+	(5)	60.0	60.0	40.0	40.0	0.0	0.0
	응답거절	(15)	66.7	53.3	26.7	33.3	0.0	20.0
연령대	20대 이하	(39)	64.1	35.9	25.6	38.5	30.8	5.1
	30대	(187)	58.8	47.1	32.1	34.2	21.4	6.4
	40대	(185)	55.7	60.5	33.0	24.9	21.1	4.9
	50대	(101)	60.4	50.5	49.5	19.8	13.9	5.9
	60대 이상	(36)	55.6	25.0	66.7	41.7	11.1	0.0
권역	수도권	(370)	59.5	49.7	35.4	30.0	20.0	5.4
	비수도권	(178)	55.6	50.6	41.6	27.5	19.7	5.1
지역	서울	(232)	62.1	51.7	32.8	24.6	22.4	6.5
	인천/경기	(138)	55.1	46.4	39.9	39.1	15.9	3.6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72.5	52.5	40.0	17.5	10.0	7.5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48.6	54.1	36.5	31.1	25.7	4.1
	전라(광주 포함)	(44)	47.7	45.5	52.3	34.1	18.2	2.3
	강원/제주	(20)	65.0	45.0	40.0	20.0	20.0	10.0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69.8	25.6	30.2	48.8	20.9	4.7
	5년~10년 미만	(122)	54.9	52.5	35.2	33.6	13.9	9.8
	10년~15년 미만	(128)	53.1	56.3	35.9	30.5	20.3	3.9
	15년~20년 미만	(82)	62.2	48.8	34.1	28.0	25.6	1.2
	20년~30년 미만	(106)	61.3	51.9	35.8	17.9	26.4	6.6
	30년 이상	(67)	56.7	47.8	55.2	25.4	11.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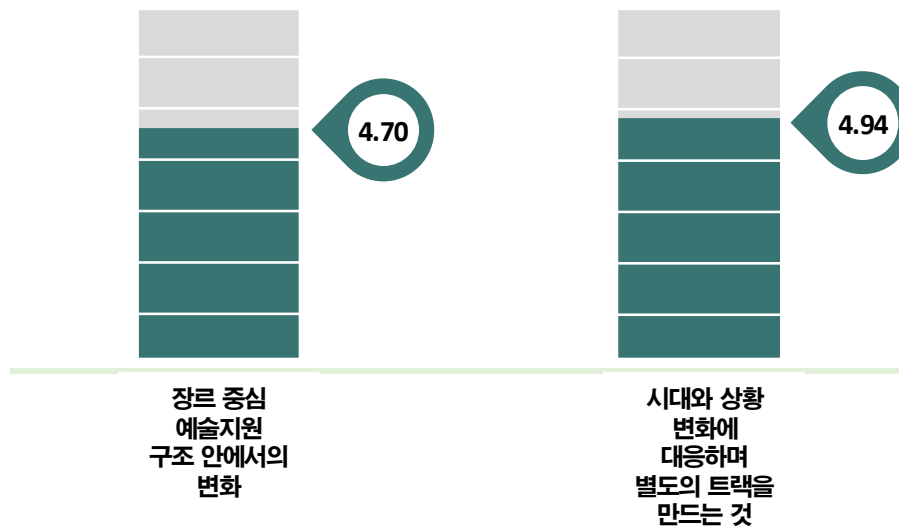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재성

가. 예술 지원 체계의 방향

■ 예술 지원 체계의 방향(7점 척도)은 장르 중심 예술지원 구조 안에서의 변화 4.70점, 시대와 상황 변화에 대응하며 별도의 트랙을 만드는 것 4.94점으로 나타남

- 예술 지원 체계의 방향(7점 척도)으로 장르 중심 예술지원 구조 안에서의 변화라는 응답은 문학 분야가 4.98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술(4.97점), 연극(뮤지컬 포함)(4.74점) 분야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4.23점), 다원예술(4.38점), 무용(4.49점), 비평(4.50점) 등의 분야에서 낮게 나타남
- 시대와 상황 변화에 대응하며 별도의 트랙을 만드는 것이라는 응답은 비평(6.10점)과 다원예술(5.73점) 분야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무용(4.28점), 문학(4.68점),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4.77점) 분야에서 낮게 나타남

[그림 2-18] 예술 지원 체계의 방향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장르 중심 예술지원 구조 안에서의 변화라는 응답은 문학(4.98점), 20대 이하(4.92점), 비수도권(4.75점), 예술인 활동 20년~30년 미만(4.81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시대와 상황 변화에 대응하며 별도의 트랙을 만드는 것이라는 응답은 비평(6.10점), 20대 이하(5.18점), 비수도권(4.99점), 예술인 활동 5년~10년 미만(5.30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23] 예술 지원 체계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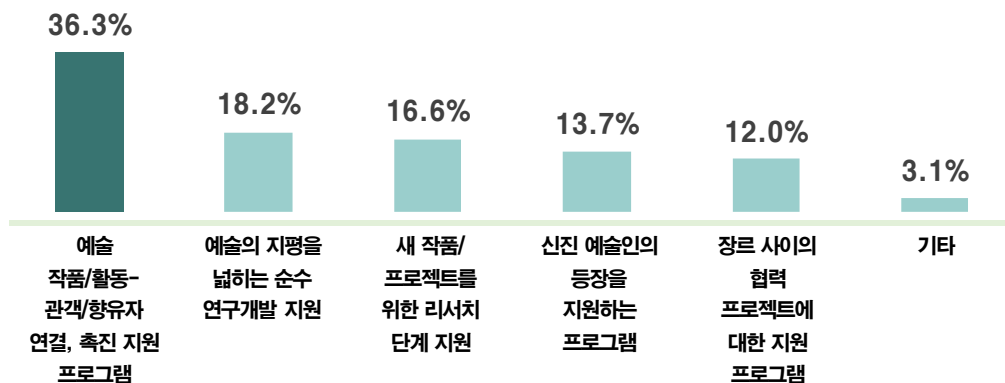
구 분 (단위 : %)		표본수 (명)	장르 중심 예술지원 구조 안에서의 변화	시대와 상황 변화에 대응하며 별도의 트랙을 만드는 것
전 체		(548)	4.70	4.94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4.98	4.68
	미술	(68)	4.97	4.88
	음악	(109)	4.71	4.85
	연극(뮤지컬 포함)	(120)	4.74	4.84
	무용	(43)	4.49	4.28
	영상	(25)	4.60	4.80
	다원예술	(40)	4.38	5.73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4.23	4.77
	비평	(10)	4.50	6.10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4.63	5.25
성별	여성	(286)	4.68	5.02
	남성	(242)	4.76	4.84
	LGBTQ+	(5)	4.80	5.80
	응답거절	(15)	3.93	4.53
연령대	20대 이하	(39)	4.92	5.18
	30대	(187)	4.75	5.09
	40대	(185)	4.65	4.80
	50대	(101)	4.71	4.91
	60대 이상	(36)	4.33	4.64
권역	수도권	(370)	4.67	4.91
	비수도권	(178)	4.75	4.99
지역	서울	(232)	4.62	4.72
	인천/경기	(138)	4.75	5.22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4.85	4.88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4.49	4.86
	전라(광주 포함)	(44)	4.86	5.32
	강원/제주	(20)	5.25	5.00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4.67	5.05
	5년~10년 미만	(122)	4.66	5.30
	10년~15년 미만	(128)	4.70	4.93
	15년~20년 미만	(82)	4.78	4.88
	20년~30년 미만	(106)	4.81	4.60
	30년 이상	(67)	4.49	4.82

나. 장르 지원 내에서 확대가 필요한 지원 영역

■ 장르 지원 내에서 확대가 필요한 지원 영역으로는 예술 작품/활동-관객/향유자 연결, 촉진 지원 프로그램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예술의 지평을 넓히는 순수 연구개발 지원(18.2%), 새 작품/프로젝트를 위한 리서치 단계 지원(1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르 지원 내에서 확대가 필요한 지원 영역에서 예술 작품/활동-관객/향유자 연결, 촉진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은 음악(44.0%), 문학(41.5%), 연극(40.8%), 무용(39.5%) 등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예술의 지평을 넓히는 순수 연구개발 지원이라는 응답은 비평(30.0%), 미술(27.9%), 다원예술(20.0%) 등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 새 작품/프로젝트를 위한 리서치 단계 지원이라는 응답은 비평(50.0%), 다원예술(32.5%), 디자인(30.8%), 무용(23.3%) 등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2-19] 장르 지원 내에서 확대가 필요한 지원 영역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예술 작품/활동-관객/향유자 연결, 촉진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은 음악(44.0%), 50대(48.5%), 비수도권(37.6%), 예술인 활동 30년 이상(52.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예술의 지평을 넓히는 순수 연구개발 지원이라는 응답은 비평(30.0%), 50대(19.8%), 비수도권(20.8%), 예술인 활동 30년 이상(22.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24] 장르 지원 내에서 확대가 필요한 지원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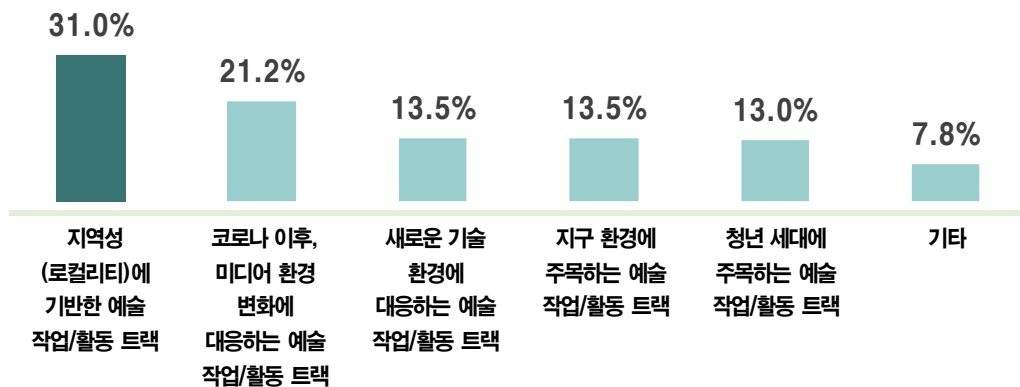
구분 (단위 : %)	표본수 (명)	예술 작품/활동— 관객/향유 자 연결, 촉진 지원 프로그램	예술의 지평을 넓히는 순수 연구개발 지원	새 작품/ 프로젝트 를 위한 리서치 단계 지원	신진 예술인의 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장르 사이의 협력 프로젝트 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기타	
전 체	(548)	36.3	18.2	16.6	13.7	12.0	3.1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41.5	17.1	14.6	14.6	12.2	0.0
	미술	(68)	33.8	27.9	20.6	5.9	10.3	1.5
	음악	(109)	44.0	16.5	8.3	14.7	15.6	0.9
	연극(뮤지컬 포함)	(120)	40.8	9.2	15.8	18.3	10.8	5.0
	무용	(43)	39.5	16.3	23.3	14.0	4.7	2.3
	영상	(25)	20.0	16.0	16.0	4.0	28.0	16.0
	다원예술	(40)	20.0	20.0	32.5	7.5	15.0	5.0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30.8	15.4	30.8	15.4	7.7	0.0
	비평	(10)	10.0	30.0	50.0	0.0	0.0	10.0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34.2	26.6	8.9	19.0	10.1	1.3
성별	여성	(286)	35.3	20.3	17.1	12.9	10.8	3.5
	남성	(242)	38.8	15.3	14.9	14.9	13.2	2.9
	LGBTQ+	(5)	20.0	0.0	20.0	40.0	20.0	0.0
	응답거절	(15)	20.0	33.3	33.3	0.0	13.3	0.0
연령대	20대 이하	(39)	28.2	17.9	12.8	28.2	7.7	5.1
	30대	(187)	27.8	18.2	18.2	18.2	13.4	4.3
	40대	(185)	37.8	17.8	17.8	10.8	13.5	2.2
	50대	(101)	48.5	19.8	11.9	8.9	8.9	2.0
	60대 이상	(36)	47.2	16.7	19.4	2.8	11.1	2.8
권역	수도권	(370)	35.7	17.0	17.3	13.8	12.2	4.1
	비수도권	(178)	37.6	20.8	15.2	13.5	11.8	1.1
지역	서울	(232)	34.9	16.4	16.8	15.1	12.5	4.3
	인천/경기	(138)	37.0	18.1	18.1	11.6	11.6	3.6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37.5	25.0	7.5	10.0	17.5	2.5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39.2	23.0	17.6	16.2	4.1	0.0
	전라(광주 포함)	(44)	43.2	11.4	11.4	13.6	18.2	2.3
	강원/제주	(20)	20.0	25.0	30.0	10.0	15.0	0.0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30.2	20.9	7.0	23.3	16.3	2.3
	5년~10년 미만	(122)	27.0	19.7	18.0	22.1	10.7	2.5
	10년~15년 미만	(128)	35.9	18.0	20.3	8.6	12.5	4.7
	15년~20년 미만	(82)	40.2	9.8	18.3	9.8	17.1	4.9
	20년~30년 미만	(106)	36.8	19.8	15.1	17.0	9.4	1.9
	30년 이상	(67)	52.2	22.4	13.4	1.5	9.0	1.5

다. 예술 지원 트랙에 제안하고 싶은 주제

■ 예술 지원 트랙에 제안하고 싶은 주제로는 지역성(로컬리티)에 기반한 예술 작업/활동 트랙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코로나 이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예술 작업/활동 트랙(21.2%),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예술 작업/활동 트랙(1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예술 지원 트랙에 제안하고 싶은 주제에서 지역성(로컬리티)에 기반한 예술 작업/활동 트랙이라는 응답은 문학(46.3%), 무용(41.9%), 비평(40.0%), 음악(32.1%) 등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코로나 이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예술 작업/활동 트랙이라는 응답은 디자인(38.5%), 음악(24.8%), 연극(23.3%) 등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예술 작업/활동 트랙이라는 응답은 다원예술(32.5%), 음악(15.6%), 무용(14.0%), 영상(12.0%) 등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2-20] 예술 지원 트랙에 제안하고 싶은 주제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성(로컬리티)에 기반한 예술 작업/활동 트랙이라는 응답은 문학(46.3%), 50대(37.6%), 비수도권(42.7%), 예술인 활동 5년 미만(39.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예술 작업/활동 트랙이라는 응답은 디자인(38.5%), 60대 이상(38.9%), 비수도권(21.3%), 예술인 활동 30년 이상(31.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25] 예술 지원 트랙에 제안하고 싶은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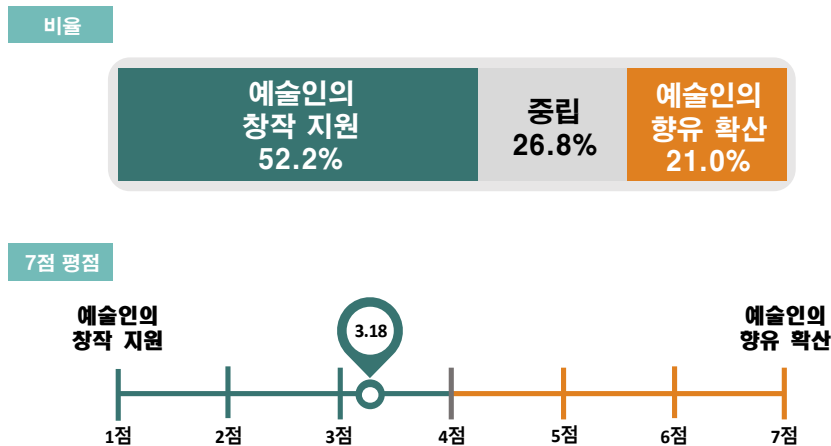
구 분 (단위 : %)	표본수 (명)	지역성에 기반한 예술 작업/활동 트랙	코로나 이후,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예술 작업/활동 트랙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예술 작업/활동 트랙	지구 환경에 주목하는 예술 작업/활동 트랙	청년 세대에 주목하는 예술 작업/활동 트랙	기타	
전 체	(548)	31.0	21.2	13.5	13.5	13.0	7.8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46.3	19.5	9.8	9.8	9.8	4.9
	미술	(68)	23.5	20.6	5.9	22.1	17.6	10.3
	음악	(109)	32.1	24.8	15.6	10.1	14.7	2.8
	연극(뮤지컬 포함)	(120)	27.5	23.3	10.0	13.3	17.5	8.3
	무용	(43)	41.9	16.3	14.0	7.0	16.3	4.7
	영상	(25)	28.0	20.0	12.0	20.0	4.0	16.0
	다원예술	(40)	22.5	12.5	32.5	15.0	5.0	12.5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30.8	38.5	0.0	15.4	0.0	15.4
	비평	(10)	40.0	20.0	10.0	20.0	10.0	0.0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31.6	19.0	17.7	12.7	8.9	10.1
성별	여성	(286)	28.3	23.4	12.2	15.7	10.8	9.4
	남성	(242)	35.5	17.8	16.1	9.9	14.5	6.2
	LGBTQ+	(5)	20.0	20.0	0.0	20.0	40.0	0.0
	응답거절	(15)	13.3	33.3	0.0	26.7	20.0	6.7
연령대	20대 이하	(39)	23.1	17.9	7.7	7.7	38.5	5.1
	30대	(187)	26.2	17.1	13.9	11.8	21.4	9.6
	40대	(185)	34.6	21.1	16.2	14.6	5.4	8.1
	50대	(101)	37.6	23.8	10.9	17.8	4.0	5.9
	60대 이상	(36)	27.8	38.9	11.1	11.1	5.6	5.6
권역	수도권	(370)	25.4	21.1	15.1	14.3	14.6	9.5
	비수도권	(178)	42.7	21.3	10.1	11.8	9.6	4.5
지역	서울	(232)	21.6	21.6	12.5	15.1	18.1	11.2
	인천/경기	(138)	31.9	20.3	19.6	13.0	8.7	6.5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45.0	32.5	10.0	5.0	5.0	2.5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41.9	21.6	6.8	13.5	13.5	2.7
	전라(광주 포함)	(44)	36.4	15.9	11.4	18.2	11.4	6.8
	강원/제주	(20)	55.0	10.0	20.0	5.0	0.0	10.0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39.5	25.6	4.7	2.3	20.9	7.0
	5년~10년 미만	(122)	22.1	15.6	9.8	16.4	27.0	9.0
	10년~15년 미만	(128)	29.7	20.3	17.2	12.5	11.7	8.6
	15년~20년 미만	(82)	35.4	18.3	18.3	14.6	7.3	6.1
	20년~30년 미만	(106)	35.8	22.6	12.3	14.2	5.7	9.4
	30년 이상	(67)	31.3	31.3	14.9	14.9	3.0	4.5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초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초점으로는 예술인의 창작 지원(매우 29.6% + 어느 정도 14.2% + 약간 8.4%)이 52.2%로 예술인의 향유 확산(매우 8.2% + 어느정도 6.0% + 약간 6.8%) 21.0%보다 31.2%p 높게 나타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초점으로 예술인의 창작 지원(매우 + 어느 정도 + 약간)이라는 응답은 비평 분야가 7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문학(65.9%), 다원예술(62.5%), 연극(뮤지컬 포함)(59.2%), 영상(56.0%)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립이라는 응답은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분야가 5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무용(34.9%), 영상(28.0%), 미술(27.9%)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예술인의 향유 확산(매우 + 어느 정도 + 약간)이라는 응답은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분야가 30.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음악(27.5%), 미술(2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초점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예술인의 창작 지원이라는 응답은 비평(70.0%), 60대 이상(66.7%), 비수도권(52.8%), 예술인 활동 20년~30년 미만(54.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예술인의 향유 확산이라는 응답은 디자인(30.8%), 30대(24.1%), 비수도권(21.9%), 예술인 활동 5년~10년 미만(26.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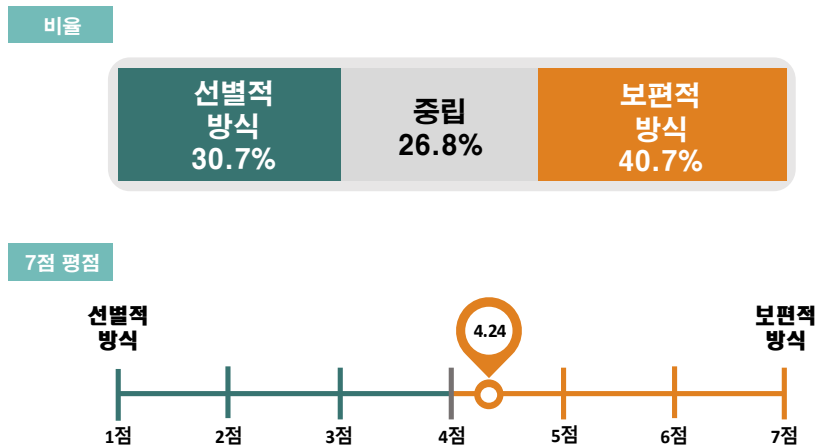
구 분 (단위 : %)	표본수 (명)	예술인의 창작 지원			중립	예술인의 향유 확산			합계		7점 평점 (점)	
		매우	어느 정도	약간		약간	어느 정도	매우	창작 지원 (합)	향유 확산 (합)		
전 체	(548)	29.6	14.2	8.4	26.8	6.8	6.0	8.2	52.2	21.0	3.18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48.8	12.2	4.9	22.0	4.9	2.4	4.9	65.9	12.2	2.49
	미술	(68)	27.9	16.2	5.9	27.9	5.9	10.3	5.9	50.0	22.1	3.22
	음악	(109)	28.4	12.8	8.3	22.9	10.1	7.3	10.1	49.5	27.5	3.36
	연극(뮤지컬 포함)	(120)	36.7	12.5	10.0	25.0	4.2	4.2	7.5	59.2	15.8	2.90
	무용	(43)	25.6	25.6	2.3	34.9	2.3	4.7	4.7	53.5	11.6	2.95
	영상	(25)	24.0	16.0	16.0	28.0	0.0	4.0	12.0	56.0	16.0	3.24
	다원예술	(40)	35.0	22.5	5.0	25.0	5.0	2.5	5.0	62.5	12.5	2.70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7.7	0.0	7.7	53.8	15.4	7.7	7.7	15.4	30.8	4.23
	비평	(10)	60.0	10.0	0.0	10.0	0.0	10.0	10.0	70.0	20.0	2.50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12.7	10.1	13.9	30.4	12.7	7.6	12.7	36.7	32.9	3.94
성별	여성	(286)	26.9	13.6	7.7	30.4	8.4	6.3	6.6	48.3	21.3	3.25
	남성	(242)	32.2	13.6	7.9	24.4	5.4	6.2	10.3	53.7	21.9	3.17
	LGBTQ+	(5)	20.0	20.0	60.0	0.0	0.0	0.0	0.0	100.0	0.0	2.40
	응답거절	(15)	40.0	33.3	13.3	6.7	0.0	0.0	6.7	86.7	6.7	2.20
연령대	20대 이하	(39)	25.6	20.5	7.7	23.1	7.7	7.7	7.7	53.8	23.1	3.21
	30대	(187)	25.1	17.1	10.2	23.5	7.5	8.0	8.6	52.4	24.1	3.29
	40대	(185)	29.7	11.9	8.1	29.2	7.6	5.9	7.6	49.7	21.1	3.21
	50대	(101)	33.7	13.9	3.0	32.7	4.0	3.0	9.9	50.5	16.8	3.08
	60대 이상	(36)	44.4	5.6	16.7	19.4	5.6	2.8	5.6	66.7	13.9	2.67
권역	수도권	(370)	29.2	15.1	7.6	27.6	7.3	6.5	6.8	51.9	20.5	3.15
	비수도권	(178)	30.3	12.4	10.1	25.3	5.6	5.1	11.2	52.8	21.9	3.24
지역	서울	(232)	29.3	16.8	7.3	28.4	6.5	6.0	5.6	53.4	18.1	3.06
	인천/경기	(138)	29.0	12.3	8.0	26.1	8.7	7.2	8.7	49.3	24.6	3.30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27.5	12.5	15.0	22.5	2.5	2.5	17.5	55.0	22.5	3.38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28.4	17.6	13.5	21.6	4.1	5.4	9.5	59.5	18.9	3.09
	전라(광주 포함)	(44)	34.1	6.8	4.5	27.3	11.4	6.8	9.1	45.5	27.3	3.32
	강원/제주	(20)	35.0	5.0	0.0	40.0	5.0	5.0	10.0	40.0	20.0	3.30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27.9	14.0	9.3	27.9	4.7	7.0	9.3	51.2	20.9	3.26
	5년~10년 미만	(122)	24.6	16.4	10.7	22.1	9.0	10.7	6.6	51.6	26.2	3.33
	10년~15년 미만	(128)	26.6	13.3	9.4	30.5	5.5	6.3	8.6	49.2	20.3	3.28
	15년~20년 미만	(82)	25.6	18.3	9.8	28.0	6.1	3.7	8.5	53.7	18.3	3.16
	20년~30년 미만	(106)	37.7	12.3	4.7	26.4	7.5	4.7	6.6	54.7	18.9	2.94
	30년 이상	(67)	37.3	10.4	6.0	26.9	6.0	1.5	11.9	53.7	19.4	3.06

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및 지원 방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및 지원 방식으로는 보편적 방식(매우 19.0% + 어느정도 10.4% + 약간 11.3%)이 40.7%로 선별적 방식(매우 12.2% + 어느정도 9.5% + 약간 8.9%) 30.7%보다 10.0%p 높게 나타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및 지원 방식으로 보편적 방식(매우 + 어느 정도 + 약간)이라는 응답은 영상 분야가 6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문학(51.2%), 연극(50.0%), 비평(40.0%), 음악(38.5%)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립이라는 응답은 다원예술 분야가 52.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무용(44.2%), 디자인(30.8%), 미술(29.4%)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선별적 방식(매우 + 어느 정도 + 약간)이라는 응답은 비평 분야가 4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술(38.2%), 음악(36.7%), 디자인(30.8%), 연극(29.2%)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및 지원 방식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보편적 방식이라는 응답은 영상(60.0%), 30대(43.3%), 수도권(43.0%), 예술인 활동 5년~10년 미만(45.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선별적 방식이라는 응답은 비평(40.0%), 60대 이상(33.3%), 비수도권(31.5%), 예술인 활동 5년 미만(41.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27]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및 지원 방식

구 분 (단위 : %)	표본수 (명)	선별적 방식			중립	보편적 방식			합계		7점 평점 (점)	
		매우	어느 정도	약간		약간	어느 정도	매우	선별 (합)	보편 (합)		
전 체	(548)	12.2	9.5	8.9	28.6	11.3	10.4	19.0	30.7	40.7	4.24	
주 예술 활동 분야	문학	(41)	9.8	4.9	9.8	24.4	12.2	4.9	34.1	24.4	51.2	4.76
	미술	(68)	17.6	11.8	8.8	29.4	11.8	8.8	11.8	38.2	32.4	3.79
	음악	(109)	13.8	13.8	9.2	24.8	10.1	11.0	17.4	36.7	38.5	4.06
	연극(뮤지컬 포함)	(120)	10.8	8.3	10.0	20.8	13.3	10.8	25.8	29.2	50.0	4.53
	무용	(43)	16.3	2.3	9.3	44.2	4.7	11.6	11.6	27.9	27.9	4.00
	영상	(25)	4.0	8.0	8.0	20.0	8.0	16.0	36.0	20.0	60.0	5.12
	다원예술	(40)	10.0	7.5	2.5	52.5	12.5	7.5	7.5	20.0	27.5	4.03
	디자인(무대/조명/음향 등)	(13)	7.7	15.4	7.7	30.8	15.4	7.7	15.4	30.8	38.5	4.15
	비평	(10)	20.0	10.0	10.0	20.0	0.0	20.0	20.0	40.0	40.0	4.10
	기타(기획/경영/정책 등)	(79)	10.1	10.1	10.1	30.4	13.9	11.4	13.9	30.4	39.2	4.18
성별	여성	(286)	10.8	11.2	9.4	29.0	12.6	11.2	15.7	31.5	39.5	4.18
	남성	(242)	14.5	7.0	8.7	29.8	9.9	8.3	21.9	30.2	40.1	4.26
	LGBTQ+	(5)	0.0	20.0	20.0	0.0	20.0	0.0	40.0	40.0	60.0	4.80
	응답거절	(15)	6.7	13.3	0.0	13.3	6.7	33.3	26.7	20.0	66.7	5.07
연령대	20대 이하	(39)	5.1	10.3	15.4	33.3	15.4	12.8	7.7	30.8	35.9	4.13
	30대	(187)	11.2	8.6	10.2	26.7	13.4	12.3	17.6	29.9	43.3	4.30
	40대	(185)	11.9	11.9	6.5	30.8	11.4	8.1	19.5	30.3	38.9	4.20
	50대	(101)	15.8	8.9	6.9	27.7	6.9	12.9	20.8	31.7	40.6	4.23
	60대 이상	(36)	16.7	2.8	13.9	25.0	8.3	2.8	30.6	33.3	41.7	4.36
권역	수도권	(370)	13.2	8.9	8.1	26.8	11.4	11.4	20.3	30.3	43.0	4.29
	비수도권	(178)	10.1	10.7	10.7	32.6	11.2	8.4	16.3	31.5	36.0	4.15
지역	서울	(232)	13.4	11.6	7.3	25.0	11.6	12.9	18.1	32.3	42.7	4.21
	인천/경기	(138)	13.0	4.3	9.4	29.7	10.9	8.7	23.9	26.8	43.5	4.43
	충청(대전, 세종 포함)	(40)	10.0	17.5	12.5	37.5	2.5	2.5	17.5	40.0	22.5	3.83
	경상(대구, 울산 부산 포함)	(74)	8.1	10.8	12.2	28.4	17.6	12.2	10.8	31.1	40.5	4.16
	전라(광주 포함)	(44)	6.8	6.8	9.1	38.6	6.8	6.8	25.0	22.7	38.6	4.52
	강원/제주	(20)	25.0	5.0	5.0	25.0	15.0	10.0	15.0	35.0	40.0	3.90
예술인 활동 기간	5년 미만	(43)	11.6	11.6	18.6	25.6	11.6	11.6	9.3	41.9	32.6	3.86
	5년~10년 미만	(122)	7.4	9.8	9.8	27.0	18.0	12.3	15.6	27.0	45.9	4.38
	10년~15년 미만	(128)	14.1	7.0	7.0	28.9	10.2	11.7	21.1	28.1	43.0	4.34
	15년~20년 미만	(82)	15.9	9.8	7.3	31.7	11.0	11.0	13.4	32.9	35.4	3.99
	20년~30년 미만	(106)	11.3	9.4	8.5	29.2	6.6	8.5	26.4	29.2	41.5	4.42
	30년 이상	(67)	14.9	11.9	7.5	28.4	9.0	6.0	22.4	34.3	37.3	4.12

부록

설문지

<부록 1> 설문지

본 조사에서 습득된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현재성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ID

--	--	--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변화하는 예술계 환경에 따른 동시대적 예술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예술인의 다변화된 현장 활동을 기반으로 예술, 예술인, 예술 활동의 새로운 정의와 기준을 세우고자 '예술의 현재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식 조사를 통해 도출한 예술의 현재성 개념은 향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 미션 및 지원사업의 목표에 중장기적으로 반영 될 기초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의견을 마음 편히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조사에서 습득된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본 설문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성실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설문에 참여해주신 응답자(설문 마지막페이지 응답 기준)분들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기프트콘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사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사시행: 주식회사 티브릿지코퍼레이션(문의 : tbridge_corp@naver.com)

응답자 기본정보

SQ1. 선생님의 주 예술 활동 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문학 ② 미술 ③ 음악 ④ 연극(*뮤지컬 포함) ⑤ 무용 ⑥ 영상 ⑦ 다원예술
⑧ 디자인(무대, 조명, 음향 등) ⑨ 비평 ⑩ 기획/경영/정책 등 기타

SQ2.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② 남성 ③ LGBTQ+ ④ 답변하고 싶지 않음

SQ3. 선생님의 나이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SQ4. 선생님의 거주지역은 어디십니까?

- ① 서울 ② 인천/경기 ③ 충청권(대전, 세종 포함) ④ 경상권(대구, 울산, 부산 포함) ⑤ 전라권(광주포함) ⑥ 강원/제주

SQ5. 선생님이 예술인으로써 활동을 시작한 연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_____ 년

예술의 작업 방식

1. 선생님의 최근 예술 작업 중 리서치/작품/활동의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 *리서치(트레이닝): 작품 구상 및 개발을 위한 개인/집단 리서치(학습, 필드트립, 세미나 참여 등), 고도화된 예술 작업을 위한 심화된 트레이닝과 연습
- *작품: 무대/갤러리/전시관/박물관/거리 등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작업
- *활동: (거버넌스/운영단/모임세미나 등의 참여, 예술로 사업 참여, 예술교육TA 참여, 예술(인)권익투쟁(집회/시위 등)

항목	%	
리서치		%
작품		%
활동		%
결과 합계		%

1-1. 10년 후 한국의 문화예술계에서 예술인들의 '예술 작업의 리서치/작품/활동'의 비중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합니까?

항목	%	
리서치		%
작품		%
활동		%
결과 합계		%

2. 선생님의 최근 예술 작업 중 개인 활동/정규 소속 단체/콜렉티브 등 유연한 방식의 협업의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 *개인 활동: 개인 용역을 통한 기획·창작·매개 작업, 운영단/거버넌스 등의 참여
- *정규 소속 단체: 극단, 오케스트라 등의 예술단체
- *유연한 협업: 일회성~다회성 프로젝트 형태로 움직이는 콜렉티브와 유연한 집단 활동

항목	%	
개인활동		%
정규 소속 단체		%
유연한 협업		%
결과 합계		%

2-1. 10년 후 한국의 문화예술계에서 예술인들의 예술 작업 중 '개인 활동/정규 소속 단체/콜렉티브 등 유연한 방식의 협업'의 비중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합니까?

항목	%	
개인활동		%
정규 소속 단체		%
유연한 협업		%
결과 합계		%

2-2. 유연한 협업에 참여한 경우 협업의 계기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학교에서 만난 사제, 선후배 및 동료 관계 ② 공공지원사업(운영단, 아카데미, 사업)에 참여하면서 만난 관계
- ③ 민간 레지던시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만난 관계 ④ 문화예술계 동료들끼리의 자유로운 만남에서 형성된 관계
- ⑤ 유연한 협업에 참여한 경우가 없음

3. 선생님의 최근 예술 작업 중 '특정한 시공간을 대상으로 한 작업'과 '불특정한 시공간에서의 작업'의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특정한 시공간: 무대, 전시장, 거리공연장 등 특정 시공간이 전제된 형태

*불특정한 시공간: 출판물, 유튜브, 온라인플랫폼 등 불특정한 시공간에서 작업하여 언제든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형태

항목	%	
특정한 시공간		%
불특정한 시공간		%
결과 합계		%

3-1. 10년 후 한국의 문화예술계에서 예술 작업 중 '특정한 시공간을 대상으로 한 작업'과 '불특정한 시공간에서의 작업'의 비중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항목	%	
특정한 시공간		%
불특정한 시공간		%
결과 합계		%

4. 최근 예술 작업 중 <단일 장르 작업 대 다장르 협업>의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합이 100)

항목	%	
단일 장르 작업		%
다장르 협업		%
결과 합계		%

5. 최근 예술 작업 중 <창작자 역할 대 기획자 역할>의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합이 100)

항목	%	
창작자 역할		%
기획자 역할		%
결과 합계		%

예술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현재성

6. 선생님이 예술인으로서 '나의 작업이 사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또는 사회적이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아래 중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작업/작품을 통해 관객이나 어떤 대상을 만나고 소통했을 때
- ② 나의 작업/작품이 내가 속한 예술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 ③ 사회적 현안에 관련된 주제를 작업의 소재로 다룰 때 (예시: 세월호, 불평등, 도시문제 등)
- ④ 나의 작업/작품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메시지를 낸다고 생각했을 때
- ⑤ 나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나의 작업/작품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때
- ⑥ 기타 ()

7. 선생님의 예술 작업에서 주요 소재가 되는 또는 관심이 있는 사회적 주제나 현안은 무엇입니까?

*Ex. 로컬리티, 예술과 기술, 기후위기, 페미니즘, 도시문제, 다양성 등

8. 선생님이 생각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 ① 예술은 사람들과 작품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이다.
- ② 예술은 시대상과 사회를 반영하며 창의적 작품 세계를 펼치는 것이다.
- ③ 예술은 삶과 사회의 문제에 창작활동으로 개입하는 실천이다.
- ④ 예술은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 ⑤ 기타 ()

9. 최근 사회적으로 그리고 공공예술지원사업 안에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한층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한 선생님의 인식은 아래 중 무엇입니까?

- ① 모든 예술 작업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이 당연하므로 예술인이 직접 이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
- ② 예술 작업이 가진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표현하는 과정 또한 예술인의 역할에 해당한다.
- ③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표현하는 것은 예술인보다는 예술지원기관 및 연구자들의 역할에 해당한다.
- ④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술인은 사회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증명할 수 있는 작업에 더 집중해야 한다.
- ⑤ 기타 ()

10.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제반 조건은 아래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예술 소비 및 향유의 증가
- ② 공정하고 투명한 예술 생태계 조성
- ③ 공공예술지원기금의 확대
- ④ 예술/예술인과 관련된 법제도적 장치 마련
- ⑤ 기타 ()

11. 선생님이 속한 예술계의 위계, 권위, 폭력 등의 문제로 인해 선생님의 예술 창작이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경험'과 이를 통해 '변화된 방향'을 서술해주세요. (개방형 질문)

예술인의 자기 인식에 대한 현재성

*여기서 예술인은 창작자 뿐 아니라 예술 작업,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통칭합니다.

12. 선생님 스스로 '나는 (직업적) 예술인이다'라고 인식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1-3순위까지 선택)

- ① 예술 작업을 통한 자신의 예술 세계의 성장을 자각한 때
- ② 예술 전문교육 과정을 입학 또는 졸업한 때
- ③ 공연, 전시, 콩쿨 수상, 등단, 공연, 전시 등 전문 예술 현장에서 데뷔할 때
- ④ 창작 지원금 등 공공지원금 수혜한 때
- ⑤ 예술인활동증명을 취득한 때
- ⑥ 예술 작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때
- ⑦ 나의 작품/작업에 대해 평론가, 기자 등의 공개적 비평/리뷰를 받았을 때
- ⑧ 기타 ()

13.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예술인으로 존중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점 척도)

	① 매우 부정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긍정
예술인 존중 정도	○	○	○	○	○	○	○

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으로서 존중, 배려 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1-2순위까지 선택)

- ① 내가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한 문의 전화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줄 때
- ② 공모 계획안, 기금 신청, 결과 공유 등 제출 서류에 대해서 예술 작업의 특성을 반영하였을 때
- ③ 내가 하고 싶은 작업/작품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사업 공모가 나왔을 때
- ④ 나의 작업/작품 활동이 문화행정기관의 홍보 채널을 통해 소개되었을 때
- ⑤ 예술 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시민/관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할 때
- ⑥ 기타 ()

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행정기관에서 '예술인'으로서 존중, 배려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1-2순위까지 선택)

- ① 내가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한 문의 전화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지 않을 때
- ② 공모 계획안, 기금 신청, 결과 공유 등 제출 서류에 대해서 예술 작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할 때
- ③ 내가 하고 싶은 작업/작품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사업 공모가 없을 때
- ④ 나의 작업/작품 활동에 대해 문화행정기관이 기금 지원 이외에는 무관심할 때
- ⑤ 예술 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에 무관심할 때
- ⑥ 기타 ()

예술인이 바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재성

*향후 10-20년을 내다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할과 활동에 대한 '점진적' 변화를 전제로 묻습니다.

16. 예술지원 체계가 현재 장르 중심의 예술지원 구조 안에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장르 지원 구조를 일부 축소하더라도 '시대와 상황 변화에' 대응하며 별도의 트랙(예를 들어, 장르융합, 타분야 협력(예술과 기술 등), 청년예술인 지원, 로컬리티, 기후위기 등 사회이슈 등)을 만드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7점 척도)

	① (부정)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긍정)
장르 중심 예술지원 구조 안에서의 변화	○	○	○	○	○	○	○
시대와 상황 변화에 대응하며 별도의 트랙을 만드는 것	○	○	○	○	○	○	○

16-1. 장르 지원 내에서 가장 미흡하고 꼭 확대가 필요한 지원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새 작품/프로젝트를 위한 리서치 단계 지원
- ② 예술의 지평을 넓히는 순수 연구개발 지원
- ③ 신진 예술인의 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④ 장르 사이의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 ⑤ 예술 작품/활동과 관객/향유자를 연결, 촉진하는 지원 프로그램
- ⑥ 기타 ()

16-2. 만약 별도의 예술지원 트랙을 만든다면 제안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입니까?

- ① 새로운 기술 환경(인공지능, 데이터 등)에 대응하는 예술 작업/활동 트랙
- ② 지역성(로컬리티)에 기반한 예술 작업/활동 트랙
- ③ 청년 세대에 주목하는 예술 작업/활동 트랙
- ④ 지구 환경(기후변화, 생태 등)에 주목하는 예술 작업/활동 트랙
- 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예술 작업/활동 트랙
- ⑥ 기타 ()

17. 예술 관련 여러 공공 지원기관(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문화재단 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이 '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예술의 향유 확산'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점 척도)

	예술인의 창작 지원			중립			예술인의 향유 확산
적합도	○	○	○	○	○	○	○

17-1. 위 답변을 하신 이유를 간략히 적어주세요. (개방형 질문)

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및 지원 방식이 ① 기존처럼 우수한 창작/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하는 선별적 방식을 지속하는 것과, ② 다수 예술인들에게 보편적 방식의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점 척도)

	선별적 방식			중립			보편적 방식
적합도	○	○	○	○	○	○	○

18-1. 위 답변을 하신 이유를 간략히 적어주세요. (개방형 질문)

19. 예술위원회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세요. (개방형 질문)

예술의 현재성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발행인 : 박종관

발행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전화 061-900-2100, 2200

팩스 061-900-2362

홈페이지 www.arko.or.kr

인쇄일 : 2021.12.15.

발행일 : 2021.12.15.

인쇄인 : 더블에이카피센터종로